

3. 五行歸類：①取象類比法 ②推演繹絡法

		木	火	土	金	水
自然	尚書 洪範	曲直 易動, 伸長 生長, 升發, 條達, 舒暢	炎上 溫熱, 赤明, 化物 向上, 蒸騰	稼穡 生化, 載物	從革 肅殺, 變革, 音聲 下降, 潔淨	潤下 滋潤, 寒冷, 就下, 閉藏 下流
	五方	東	南	中	西	北
	五時	春	夏	長夏(四季)	秋	冬
	時間	後半夜, (平旦)	上午, (日中)	(日西)	下午, (日入)	前半夜, (夜半)
	五氣	風	暑(熱)	濕	燥	寒
	五氣(五氣)	端(柔)	高(息)	平(充)	潔(成)	明(堅)
	五化	生	長	化	收	藏
	性	溫	熱	平	涼	寒
	色	青	赤	黃	白	黑
	味	酸(收, 澀)	苦(堅, 燥, 瀉)	甘(緩, 和, 補)	辛(潤, 散, 橫行)	鹹(軟, 下)
	音	角	徵(羽)	宮	商	羽
	五役	色	臭	味	聲	液
	數	3, 8	2, 7	5, 10	4, 9	1, 6
人體	臟脈 有邪	肝 陰中之陽 弦(弦細而長) 腋	心 陽中之陽 鉤, 洪(浮大而數) 肘	脾 至陰 代, 緩(和緩而大) 股	肺 陽中之陰 毛(浮短而澀) 肘	腎 陰中之陰 石(沈濡而滑) 臍
	腑	膽	小腸	胃	大腸	膀胱
	五輸穴	井穴(出) 心下滿	榮(溜) 身熱	輸(注) 體重節痛	經(行) 喘咳寒熱	合(入) 逆氣而泄
	五精(五神)	魂 隨神往來 神氣之輔弼	神 兩精相搏 精氣之化成	意 心有所憶 記而不忘者	魄 并精出入 精氣之匡佐	志 意之所存 專意而不移者
	五種機能 官能	發生 衝動	推進 神明	統合 人格	抑制 檢閱	沈靜 作強
	志(情)	怒則氣上 興奮 血鬱	喜則氣緩 弛緩 血和	思則氣結 鬱欲 血留	憂則氣沈(悲) 緊張 血凝	恐則氣下 沈靜 血逆
	五體(形體)	筋	脈	肉	皮毛	骨
	官竅(主)	目	舌	口	鼻	耳
	五支	爪	毛	乳	息	髮
	五液	淚(泣)	汗	涎	涕	唾
	五聲	呼	笑(言)	歌	哭	呻
	五華	爪(筋之餘)	面	脣	皮毛	髮(血之餘)
	五輪	風	血	肉	氣	水
	五變(變動)	握	憂	噦	欬(咳)	慄(栗)
	構成	血	神	津液	氣	精
氣候	令(氣候, 時令)	宣發(風)	鬱蒸(熱)	雲雨(濕)	霧露(燥)	閉塞, 霰雪(寒)
	政	發散(散)	明曜(明)	安靜(謐)	勁肅(勁)	流演(靜)
	化	生榮(榮)	蕃茂(茂)	豐滿(盈)	堅斂(斂)	凝堅(肅)
五運 三氣之紀	平氣 不及之氣 太過之氣	敷和 委和 發生	升明 伏明 赫曦	備化 卑監 敦阜	審平 從革 堅成	靜順 潤流 流衍
오행배속	天干(형제)	甲乙	丙丁	戊己	庚辛	任癸
	夫婦五行(化五運)	丁任	戊癸	甲己	乙庚	丙辛
	地支五行配屬	寅卯	巳午	辰戌丑未	申酉	亥子
旺相論	五臟을 我로(肝)	旺(我)	休(我生)	囚(我克)	死(克我)	相(生我)
五邪	肝을 기준으로	正邪(自病者)	實(從前來者)	微(從所勝來者)	賊(從所不勝來者)	虛(從後來者)
萬物	五穀	麥, 麻	黍(禾), 麥	稷(稷), 粟	稻(稻)	豆
	五果	李	杏(살구형)	棗	桃	栗
	五畜	鷄	羊	牛	馬	彘(돼지 체)
	形	枝葉	花	莖(줄기 경)	果	根仁
	五菜	菰, 韭 부추구	薤 엄교해	葵(근)	蔥(파 충)	藿(콩잎과)
	蟲	毛	羽	裸(알몸라)	介	鱗
	五用	動	躁	化	固	藏
	五性	喧	暑	靜兼	涼	凜
	臭	臊	焦(초)	香	腥(비린 성)	腐(썩을 부)
기타	五畏	清涼	寒	風	熱	濕
	五德	和	顯	濡	清	寒
	五眚	隕	燔炳	淫潰	蒼落	冰雹

※ 神의 分類(靈樞 本神篇)

- 1) 神 - 兩精相搏 謂之神. 神者 精氣之化成.
- 2) 魂 - 隨神往來者 謂之魂. 魂者 神氣之輔弼也.
- 3) 魄 - 竝精而出入者 謂之魄. 魄者 精氣之匡佐也.
- 4) 心 - 所以任物者 謂之心.
- 5) 意 - 心有所憶者 謂之意, 記而不忘者.
- 6) 志 - 意之所存者 謂之志.
- 7) 思 - 因志而存變 謂之思.
- 8) 慮 - 因思而遠慕 謂之慮.
- 9) 智 - 因慮而處物 謂之智.

※ 魂 : 魂之爲言, 如夢寐恍惚·變幻遊行之境皆是也. => 精神活動의 하나로 꿈속의 幻覺 같은 것
 魄 => 魄之爲用 能動能作 痛痒由之以覺也. => 본能的 感覺과 動作

제3절 氣

1. 氣의 기본개념: 形이 없고 活動力이 강하여 무단히 운동하는 것

- ① 중국 고대 철학자들의 인식 -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라 인식함
 - 通天下一氣耳(莊子 知北遊)
- ② 醫學的 인식 -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본물질
 - 형체를 이루는 氣 : 臟, 腑, 竅, 精, 血, 津液 등
 - 형체를 이루지 않는 氣 : 元氣, 宗氣, 衛氣 등

2. 氣의 生成의 來源 : 臟腑上 腎脾肺(胃)와 가장 밀접

- ① 先天의 精氣: - 부모의 生殖의 精에서 來源하여 출생하기 전에 이루어짐
 - 腎에 저장되어 함부로 外泄하지 않아야 함
- ② 水穀之氣 : 음식물에서 來源

人受氣于穀 穀入于胃 以傳于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 ③ 清氣(天陽之氣) : 肺의 呼吸기능에 의해서 體內로 흡수됨

3. 氣의 機能 : 추동, 온후, 방어, 고섭, 기화

- ① 推動作用 : 인체의 生長發育과 臟腑, 經絡, 組織器官의 生理活動을 추동함,
 血의 生成 및 運行, 津液의 生成과 輸布 및 排泄을 推動, 促進
- ② 溫煦作用(정상적 체온유지) : 氣主煦之(難經) : 心火, 脾陽, 腎陽, 命門火, 肺衛

※ 溫煦작용 失常

- ㉠ 溫煦不足而爲寒 - '畏寒'喜熱, 四肢不溫, 體溫低下, 血과 津液의 運行遲緩
- ㉡ 氣鬱卽化熱 - 氣有餘便是火, 氣實者熱也 氣虛者寒也
- ③ 防禦作用 : '衛氣'가 全身肌表를 보호하고 腠理의 開闔을 調節하여 皮毛 통한 外邪侵入방어
 邪之所湊 其氣必虛(素問 評熱病論) : 衛氣, 肺主氣
 ※ 防禦作用不良 : 易感冒, 畏寒, 自汗 => 衛氣虛와 밀접

④固攝作用：脾統血과 관련이 많음

└血液이 脈外로 溢出하지 않게 한다.

└汗液, 尿液 그 외 分泌物(津液)이 過度하게 分泌되지 않도록 統制

└精液을 統制 ⇒ 腎陽

└(? 納氣作用 ⇒ 腎氣)

固攝失司：(1) 胃下垂 大腸下垂 脫肛 脫陰(문제에 따라 잘 판단할 것)

(2) ① 氣不攝血 ⇒ 出血證

② 津液失攝 ⇒ 遺尿 夜尿 汗出證

③ 氣不攝精 ⇒ 遺精 滑精 早泄

(3) 腎不納氣 ⇒ 喘息

※ 문제에서 氣의 固攝作用：“血液, 汗, 尿液, 精液” 固攝이 중요(內臟 位置 固攝은 ×)

⑤氣化作用：氣化는 氣의 運動과 이에 따르는 각종 變化을 가리킴.

각종 氣의 生成 및 그 代謝, 精氣血津液의 生成 및 代謝와 그 相互轉化

(물질이나 에너지轉化, 臟腑와 연관된 氣血津液精의 相互轉化와 輸布를 主管함)

- 氣의 자율적 發生變化

① 氣의 化生：脾胃는 음식물에서 水穀精氣 分化하여 營氣와 衛氣를 生成

肺가 흡입한 清氣와 결합하여 宗氣 生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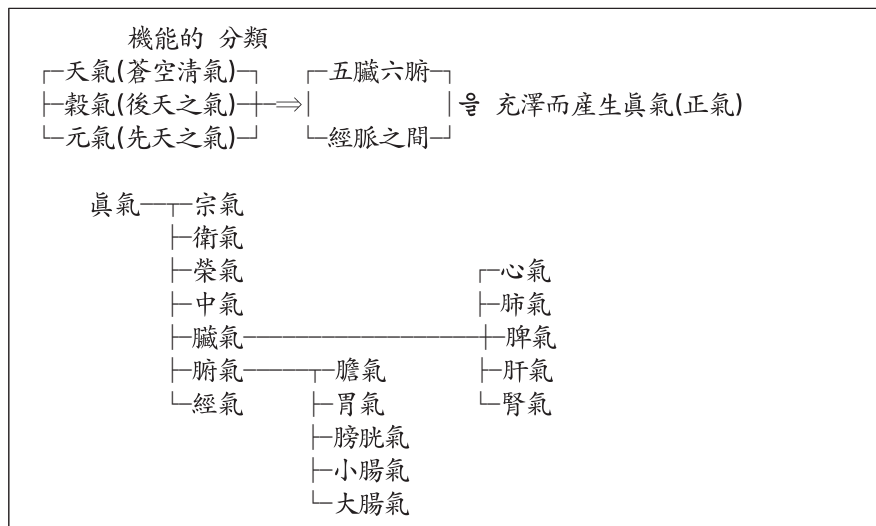
腎中の 先天之精이 水穀精氣로부터 滋養받아 元氣생성

② 清氣가 轉化하여 濁氣로 됨

- 生命活動의 本質은 氣化作用：陽化氣陰成形(=인체 氣化기능 概括)

⑥(營養作用)

4. 氣의 分類：氣가 여러 명칭인 이유 - ‘組成成分, 分布部位, 機能特性’에 따라 여러 종류



①元氣(眞氣, 原氣, 生氣, 眞元之氣, 先天之氣) :

- 人體生命活動의 原動力(生命活動의 原動力과 來源을 유지시키는 역할)
- 人體의 가장 根本이 되는 중요한 氣(人之所生 全賴此氣)

㉠ 組成 : - 腎中精氣가 元氣의 化生을 주관하고 脾胃 水穀精氣의 滋養을 받음.

- 腎中精氣는 先天之精과 後天之精의 종합

- 眞氣(元氣)는 先天之精으로부터 化生. 腎에 저장되어 水穀精微에 의해

부단히 자양되며 三焦의 작용에 의해 전신에 分布(三焦者 元氣(原氣)之別使)

☆ 三焦는 元氣를 輸送하여 전신에 이르게 하는 別使,

三焦는 元氣의 運行通道가 됨

☆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系也(難經 36난)

命門爲元氣之本(景岳全書)

㉡ 주요기능 : 人體生長發育生殖을 추진하고 臟腑經絡形體九竅의 生理活動을 推動

※고대에는 철학용어로 天體가 형성될 때의 混沌狀況을 말함(王充의 <論衡> 총강 333 참조)

②宗氣 - ‘胸中에 쌓인 氣’ : 胸中은 膻中, 氣海

㉠ 組成과 분포 : (宗氣는 眞氣에서 派生됨, 下氣海에서 蓄한 先天之氣를 機能化)

- 肺로 흡입된 淸氣와 脾胃運化의 水穀精氣가 결합하여 胸中에 聚集된 氣를 말함

- 五穀入于胃也其糟粕津液宗氣分爲三隧 故宗氣積于胸中出于喉嚨以貫心脈而行呼吸焉.

- 두 방향으로 운행 : 하나는->宗氣留於海, 其下者注於氣街, 其上者走於息道(靈樞 刺節眞邪)

다른 하나->出於肺, 循喉咽, 故呼則出, 吸則入.(靈樞 五味)

㉡ 주요 機能 : 呼吸과 行氣血 방면

- 氣道를 走하여 呼吸을 행함 -- 言語, 聲音, 呼吸이 모두 宗氣와 밀접

- 貫心脈, 行氣血 -- 心脈을 貫하여(心主血脈작용을 수행시켜) 氣血을 행함

-- 氣血의 運行과 脈의 搏動은 宗氣에 의존함.

※胃之大絡, 名曰虛里, 貫鬲絡肺, 出於左乳下, 其動應衣, 脈宗氣也. 盛喘數絕者, 則病在中;

結而橫, 有積矣; 絕不至曰死. 乳之下其動應衣, 宗氣泄也.

= 宗氣의 盛衰와 虛里

- 內氣와 外氣의 종합체로서 전신을 貫注하는 氣의 起點

- 視, 聽, 言, 動관 관련 : ‘動氣’(周學海 <讀醫隨筆>)

- 氣血運行, 肢體寒溫, 活動能力의 多少와 관련

- 上氣海(膻中)에 積하며 走息道(호흡과 音聲強弱 조절)

宗氣留於海, 其下者注於氣街, 其上者走於息道(靈樞 刺節眞邪論)

- 營衛氣 循行의 一種의 推動에너지 -- “經絡循環의 原動力” “營衛를 운행하는 原動力”

cf) ※ 經絡이 機能하고 活動하는 基礎는?

原氣

※ 生長發育과 臟腑機能活動을 推動하는 氣는?

元氣(眞氣)

※ 經絡循環의 原動力은?

宗氣

※ 經絡이 氣血을 運行하게 하는 推動에너지는?

宗氣

③營氣(營血, 營陰) : ‘脈中에 행하는 氣’

- 血과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음. 衛氣의 상대적 개념.

㉑ 生成：水穀의 精微에서 化生(營者水穀之精氣也)

人受氣于穀，穀入于胃，以傳與肺，五藏六府，皆以受氣，其清者爲營，濁者爲衛，營在脈中，衛在脈外，營周不休，五十而復大會，陰陽相貫，如環無端（靈樞 營衛生會）

㉔ 주요 기능

⑨ 血液化生 : 血의 主要構成成分이 되면서 血液을 化生하는 과정에서도 중요 역할
中焦出氣如露, 上注谿谷, 而滲孫脈, 津液和調, 變化而赤爲血(靈樞 癰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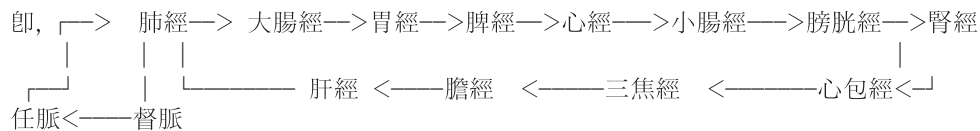
營氣者，泌其津液，注之于脈，化以爲血，以榮四末，內注五藏六府(靈樞 邪客篇)

-> 營氣는 水穀 中の 津液을 吸收하여 脈中으로 滲注入하는 기능이 있음

⑥ 全身 營養작용 : 五臟六腑, 四肢百骸는 營氣의 滋養에 의존하여 기능 발휘

㉔ 營氣의 운행 : 脈中에서 全身운행(주야 총 50회), 內로 臟腑에 入, 外로 肢節에 보내짐

經絡循行：營氣는 中焦에서 起始하여 十二經脈의 流注順序로 運行한다. 別者는 任督脈을 순환.



④衛氣(衛陽, 浮氣, 濁氣) : 脈外를 운행하며 外邪침입을 방어하는 氣

㉑ 주요 기능 a. 肌表를 호위하여 外邪侵入을 防禦(抗體의 增強作用도 있음)

b. 臟腑, 肌肉, 皮毛등을 溫養함(특히 經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營養作用)

->衛氣의 溫煦와 充養작용의 내용

全身溫暖(體溫調節), 皮膚柔潤, 肌肉壯實, 腠理緻密

c. 腠理의 開闔을 통해 汗의 배설을 조정

- 營血과 津液이 땀이 나는 근원

- 汗液의 배출여부는 衛氣의 통제와 조절을 받음

※ 衛氣者 所以 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闔者也(靈樞 本藏)

㉔ 衛氣의 순행(3가지 論) : 皮膚와 分肉之間을 爲主로 순환

a. 營氣의 윤행을 따름 : 十二經脈을 따라晝夜 합하여 50회 순행

b. 낮에는 陽分을 운행하고 밤에는 陰分을 운행한다(주간, 야간 각각 25회 씩)

平旦에 目開시 眼目에서 起始하여 手足三陽經(太陽->少陽->陽明....)을 순환함

밤에 目閉시 속으로 들어가 腎心肺肝脾腎의 순서로 25周하고 目開시 目으로 돌아옴

c. 全身을 散行 : 밖으로 皮膚, 筋骨, 分肉之間, 안으로 胸腹, 臟腑, 育膜 등에 散行

一、衛氣之性慄悍滑利故不入脈中而行于脈外‘內而胸腹臟腑 外而皮膚肌肉 遍布全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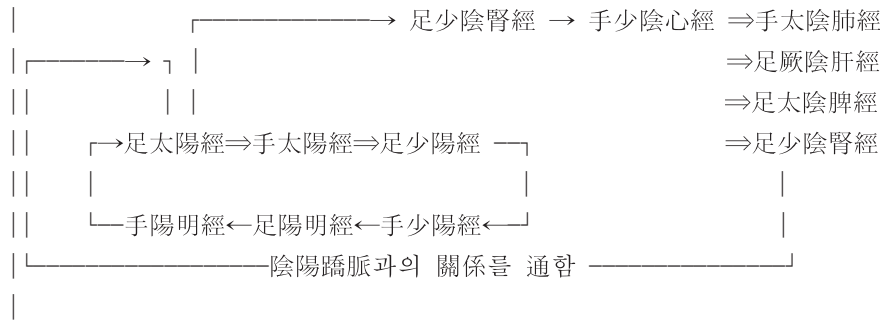
※下焦(腎陽)에 근원-- 中焦로부터 滋養 --- 上焦에 의하여 開發(폐의 선발)

衛氣者 一 根本于下焦 ⇒ 先天 卽 命門相火에서 根本하는 것으로 腎中の 陽氣로부터 化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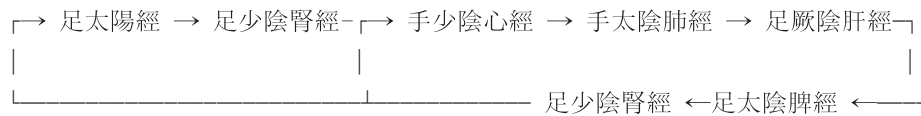
— 營養于中焦 ⇒ 脾胃에서 化生된 水穀之精微에서 滋養되어야 作用을 發揮할 수 있다.

↳ 開發于上焦 ⇒ 上焦 肺氣의 宣發作用에 의해서 散布.

「晝間의 衛氣 循行



「夜間의 衛氣 循行



■ 營氣와 衛氣의 비교

	屬性	所在	所主	性能	作用	所出	來源(共通點)	清濁
營	陰	內	血	五臟調和 六腑洒陳	營養	中焦	水穀之 精微에서	清
衛	陽	外	氣	慄疾滑利	護衛	下焦	化生	濁

營氣：脈中運行, 主靜主守, 屬陰

衛氣：脈外運行, 慄疾滑利, 溫煦 작용, 屬陽

■ 營衛의 生成

五穀入于胃也, 其糟粕津液宗氣分爲三隧, 故宗氣積于胸中, 出于喉嚨, 以貫心脈而行呼吸焉.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于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府, 以應刻數焉.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영추 邪客)

⑤ 臟腑의 氣와 經絡의 氣

두 氣는 모두 全身의 氣(“元氣”)의 일부로 元氣가 어떤 臟腑, 혹은 어떤 經絡에 분포하면 바로 그 臟腑之氣와 그 經絡之氣가 된다

- 藏府之氣와 經絡之氣 來源：선천의 精氣 + 清氣 + 水穀精氣

==> ‘水穀精氣가 가장 중요함’

- 經絡之氣는 眞氣, 經氣, 經脈之氣라고도 함

※藏府之氣와 經絡之氣의 물질적 기초는? 元氣

⑥ 기타：穀氣(水穀之精氣)

眞氣：經脈을 통하여 전신운행(즉 眞氣가 經絡에 들어가면 經氣가 됨)

正氣：人體 抗病能力的 强弱과 人體의 生理機能 ↔ 邪氣

♣ - 營氣와 衛氣는 中焦(脾胃之氣)로부터 化生

- 宗氣는 營衛之氣와 自然之氣가 相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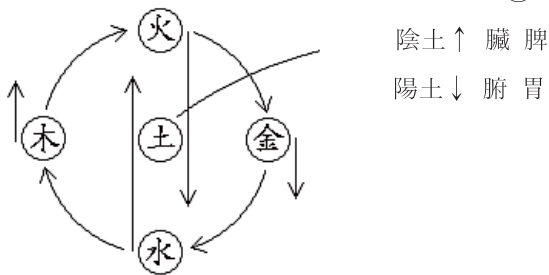
- 正氣는 元氣, 宗氣, 榮衛之氣와 각각의 臟腑之氣를 포함한 개념

♣ 三寶：精(地), 氣(天), 神(人)

5. 氣의 運行 : 氣의 運動을 ‘氣機’라 함, 氣의 運動방식은 “升降出入”

1) 氣의 正常運動의 필수 요소 : ㉠ 氣의 升降出入의 協助平衡

㉡ 氣의 運行通暢하고 막힘이 없어야 한다



2) 氣機失調의 다섯 가지

① 氣滯 : 어느 부위에 氣機가 失暢, 阻滯됨 => 疏通

② 氣逆 : 上升太過, 下降不及=> 降氣

③ 氣陷 : 清氣가 下에 있어 升舉할 수 없는 상태, 上昇不及이 많고 下降太過는 적다=>升提

④ 氣脫 : 氣가 內守할 수 없어 대량 外로 離脫, 氣虛 極甚하여 氣竭, 氣絶에 임박 =>固攝

⑤ 氣閉 : 氣가 不能外達하여 內에 鬱結閉塞=>급히 開泄

3) 臟腑와 氣機

① 肺氣 : 宣發肅降 - 吸清呼濁 ----- 下降 주관

② 肝氣 : 疏泄條達 - 氣의 運行이 暢達되도록 함.----- 上昇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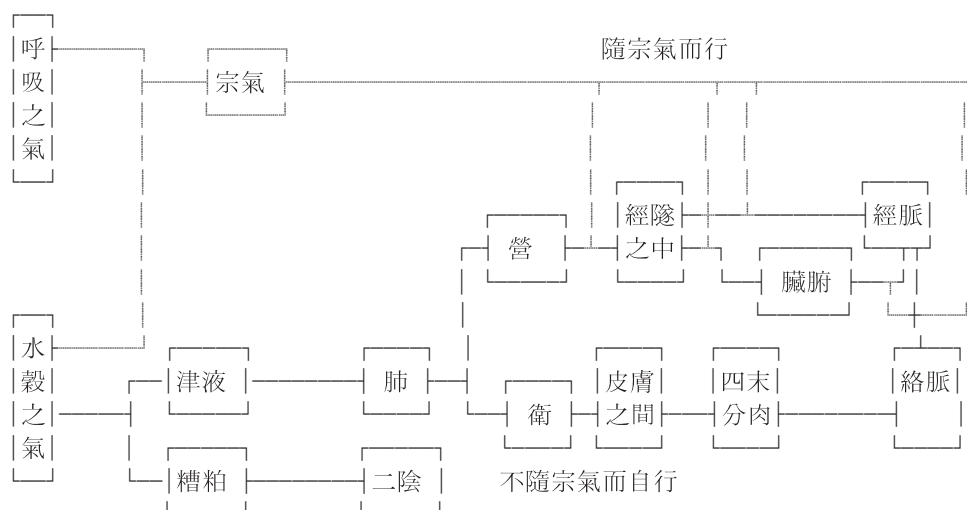
③ 腎氣 : 氣化作用, 水火之宅(命門) -- 水分代謝의 升降出入을 구성

④ 肺主呼吸, 腎主納氣, 呼出心與肺 吸入肝與腎, 肺爲氣之主 腎爲氣之根

⑤ 脾主運化, 胃主納入 水穀之海 ---脾氣上升 胃氣下降 - 消化方面의 升降出入

⑥ 心腎相交 = 水火相濟(心火는 下降하고 腎水는 上昇)

■ 營, 衛와 宗氣와의 關聯圖



제4절 血

1. 血의 概念

脾胃運化에서 來源한 水穀精氣가 營氣와 肺의 작용을 통하여 心에 들어가 赤色の 액체로 변하여 心과 氣의 推動作用에 의하여 脈管내를 순행하는 것

- 脈은 血液運行的 도로(夫脈者 血之府也)

2. 血의 生成 : 血의 주요 組成은 ‘營氣와 津液’

① 水穀精氣=>‘營氣+津液’ -> 脈中에 入=> ‘血’이 됨.

“中焦受氣取汁變化而赤是謂血 ”

中焦는 脾胃,

受氣取汁은 脾胃가 飲食物을 運化하고 水穀精微를 생성하여 營氣, 津液 등을 化生變化而赤은 氣化作用으로 營氣, 津液이 변화되어 血이 생성되는 것

② 營氣者泌其津液注之於脈 化而爲血 - ->血液이 脈中(肺脈 혹 孫絡)에서 생성

③ 精血同源 : 精血사이에는 相互資生과 相互轉化의 관계(주의 : 髓는 血의 生成來源이 아님.)

④ 津液이 血로 化生

=> 總講>血液化生の 주요 물질적 기초는? : 營氣와 津液(精?)

血液化生の 주요 장소는? 脈中(肺脈, 孫絡)

氣血生化之源은? 脾胃

3. 血의 機能 - ‘血主濡之’(血의 주요한 生理機能은? 營養과 滋潤작용)

① 人體 臟腑, 形體, 九竅 등 組織, 器官의 生命活動 유지

② 運動과 感覺機能에 필요한 營養을 滋潤 = 感覺과 運動이 血液의 營養에 의존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소문 五臟生成編)

※血虛==>頭暈, 目花, 視物不清, 耳鳴, 四肢麻木, 運動無力, 筋骨拘攣, 甚則 萎廢不用

③ 精神活動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 : 血氣者 人之神 不可不謹養

※血虛, 血熱, 血液運行失調 時

=>모두에서 精神衰退, 健忘, 失眠, 多夢, 煩燥 甚則 精神恍惚, 驚悸不安, 譫妄, 昏迷

4. 血의 循行 : 心肝脾肺와 특히 밀접

1) 두 가지 견해가 있음

㉠ <靈樞 營氣> : 營血이 十四經脈으로 循環流行 -> 營氣의 運行路線과 同一

㉡ <素問 經脈別論> : 飲食物 中の 精微物質이 血行을 따라 流布되는 物質代謝 經路.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氣口成寸, 以決死生.(素問 經脈別論)

=>食氣入胃->肝->心->肺->心->肝 脾 肺 腎의 경로

제6절 十二經脈

1. 十二經脈의 개념 및 分布 規律

1) 十二經脈의 概念

- ① 인체의 主軸을 형성하고 縱的 方向으로 관통하고 있는 12개의 幹線
- ② 十二經脈 특징 : - 臟과 腑가 각각 表裏關係를 이룸(ex. 간과 담, 심과 소장, 비와 위...)
 ↗ 屬 : 十二經脈이 각각 자신의 臟腑와 직접 이어지는 것
 ↘ 絡 : 十二經脈이 각기 表裏를 이루는 臟腑와 이어지는 것
 ※陰經과 陽經은 뚜렷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經別, 別絡의 經路를 통과하여 相互連繫하여 '表裏相合' 관계를 조성함.
 - 三陰 三陽이 이용됨(標本中氣論의 臟腑配合原則 참조)
 - 心包가 포함됨
 - 經絡은 각각 좌우대칭
- ③ 十二經脈의 명칭 : 手足, 陰陽, 臟腑의 내용 함유(ex.手太陰肺經 - 四肢內側, 臟 → 陰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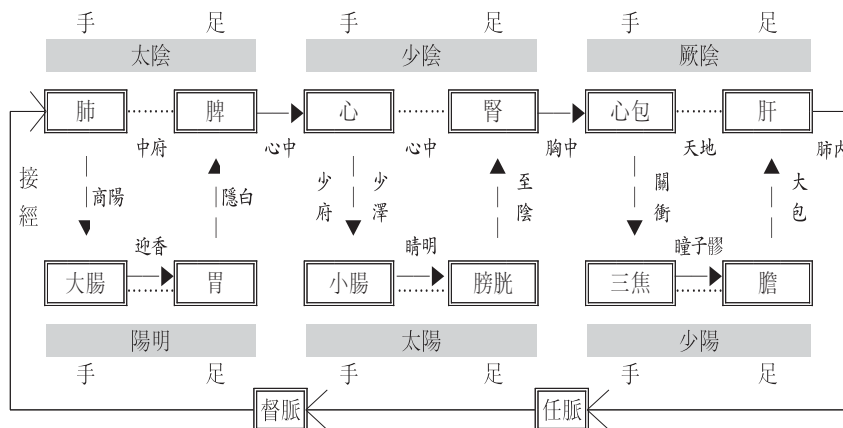
2) 分포 規律

- ① 陰經 : 五臟 중의 한 臟에 內屬(心包 포함), 四肢의 內側에 分布
 陽經 : 六腑 중의 한 腑에 內屬, 四肢의 外側에 分布
- ② 胸 ---> 手陰經 ---> 手 ----> 手陽經 ---> 頭 ---> 足陽經 ---> 足趾
 ↖ <----- 足陰經 <----- ↘
- ③ 經脈走向 : 手三陰經 : 從胸走手
 手三陽經 : 從手走頭(肩胛部) → 缺盆을 지남
 足三陽經 : 從頭走足 ↗ cf.족태양방광경은?
 足三陰經 : 從足走胸(腹)
- ④ 經脈交接 : 手三陰 手三陽 : 手指部
 手三陽 足三陽 : 頭面部(頭爲諸陽之會)
 足三陽 足三陰 : 足趾部
 足三陰 手三陰 : 胸中
- ⑤ 頭面部 經脈 : 陽經이 분포되어 있음
 陽明經 - 面部, 額部(在前). 太陽經 - 面頰, 頭頂 및 頭後部(在後). 少陽經 - 頭側部.
- ⑥ 軀幹部 순행 및 표리관계
 ┌ 太陰經 - (前面) - 陽明經 ┐
 內.裏. | 厥陰經 - (側面) - 少陽經 | 外.表.
 └ 少陰經 - (背面) - 太陽經 ┘
- ⑦ 胸腹部에서의 經絡 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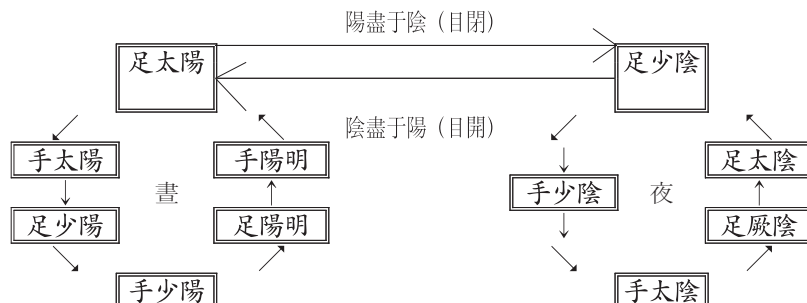
	任脈	腎經	胃經	脾經	肝經
胸部	正中線	2寸	4	6	側面
腹部	“	0.5寸	2	4	側面

2. 十二經脈의 流走(始,終點)

	部位	穴名	經名	部位	穴名
→ → →	中焦	(中府)	---> ①手太陰 肺經	---->	手大指端 (少商)
↑ ↑	鼻防	(迎香)	<--- ②手陽明 大腸經	<----	手次指端 (商陽)
↑ ↑	目下	(承泣)	---> ③足陽明 胃經	---->	足二趾端外側 (厲兌)
↑ ↑	胸腹3側線(大包)		<--- ④足太陰 脾經	<----	足大趾內端 (隱白)
↑ ⑭任脈	腋下	(極泉)	---> ⑤手少陰 心經	---->	手小指內端 (少衝)
↑ (前)	耳前	(聽宮)	<--- ⑥手太陽 小腸經	<----	手小指外端 (少澤)
↑ ↑	內眥	(睛明)	---> ⑦足太陽 膀胱經	---->	足小趾外端 (至陰)
↑ ⑬督脈	胸腹2側線(俞府)		<--- ⑧足少陰 腎經	<----	足掌心 (湧泉)
↑ (後)	乳傍	(天池)	---> ⑨手厥陰 心包經	---->	手中指端 (中衝)
↑ ↑	眉梢	(絲竹空)	<--- ⑩手少陽 三焦經	<----	手無名指端 (關衝)
↑ ↑	外眥	(瞳子髎)	---> ⑪足少陽 膽經	---->	足四趾端 (竅陰)
← ← ←	脇部	(期門)	<--- ⑫足厥陰 肝經	<----	足大趾外端 (大敦)



■ 衛氣의 순행



3. 十二經脈의 是動病 및 所生病(醫家들의 해석이 不一致)

1)是動病 : ① 經絡의 病變이 그 經絡自體에서 생긴 原發性인 것

② 本經脈의 經氣運行의 변동으로 인한 病理현상

2)所生病 : ①經絡의 病變이 그 臟腑의 疾患에 의해서 所屬經絡에까지 파급된 續發性

②本經脈이 主治할 수 있는 病證의 범위

是動病	氣病(先病) 氣留而不行	本經의 병	在氣,陽,衛, 病在外	外因의 所致	經絡의 병
所生病	血病(後病) 血凝而不濡	他經의 병	在血,陰,營 病在于裏	内因의 所致	臟腑의 병
	難經	難經經釋	楊康侯	靈樞集註	十四經發揮

※ 所生病(문제를 풀 때만 참고할 것)

手陽明大腸經 - 是主津所生病者, 胃經 - 血, 小腸經 - 液, 膀胱經 - 筋
心包經 - 脈, 三焦經 - 氣, 膽經 - 骨

※ 주요 장부의 所生病 (五行歸類의 순서에 三焦만 추가)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三焦 ----> 骨 液 血 津 筋 氣

4. 標本, 根結과 氣街 理論

標本이론의 意義 : 四肢末端과 頭面, 軀幹의 聯系를 강조한 것임

①標本 - 標 : 頭, 面, 胸, 背部(上的 位置)

- 本 : 四肢末端(下的 位置)

※cf)正氣는 本, 邪氣는 標, 先丙은 本, 後病은 標,

經絡理論에서 上에 있는 것은 標, 下에 있는 것은 本

②根結 - 根 : 四肢 즉 四肢末端의 井穴

- 結 : 軀幹 즉 頭顔面이나 軀幹과 有關한 部位(標)

③氣街 : 頭, 胸, 腹, 脛에 위치하는 眞氣所聚集的道路, 經氣運行의 道路

-->주로 標와 結의 범위에 속함

頭의 氣街 : 腦(百會穴) : 頭部穴의 중요성, 頭鍼, 耳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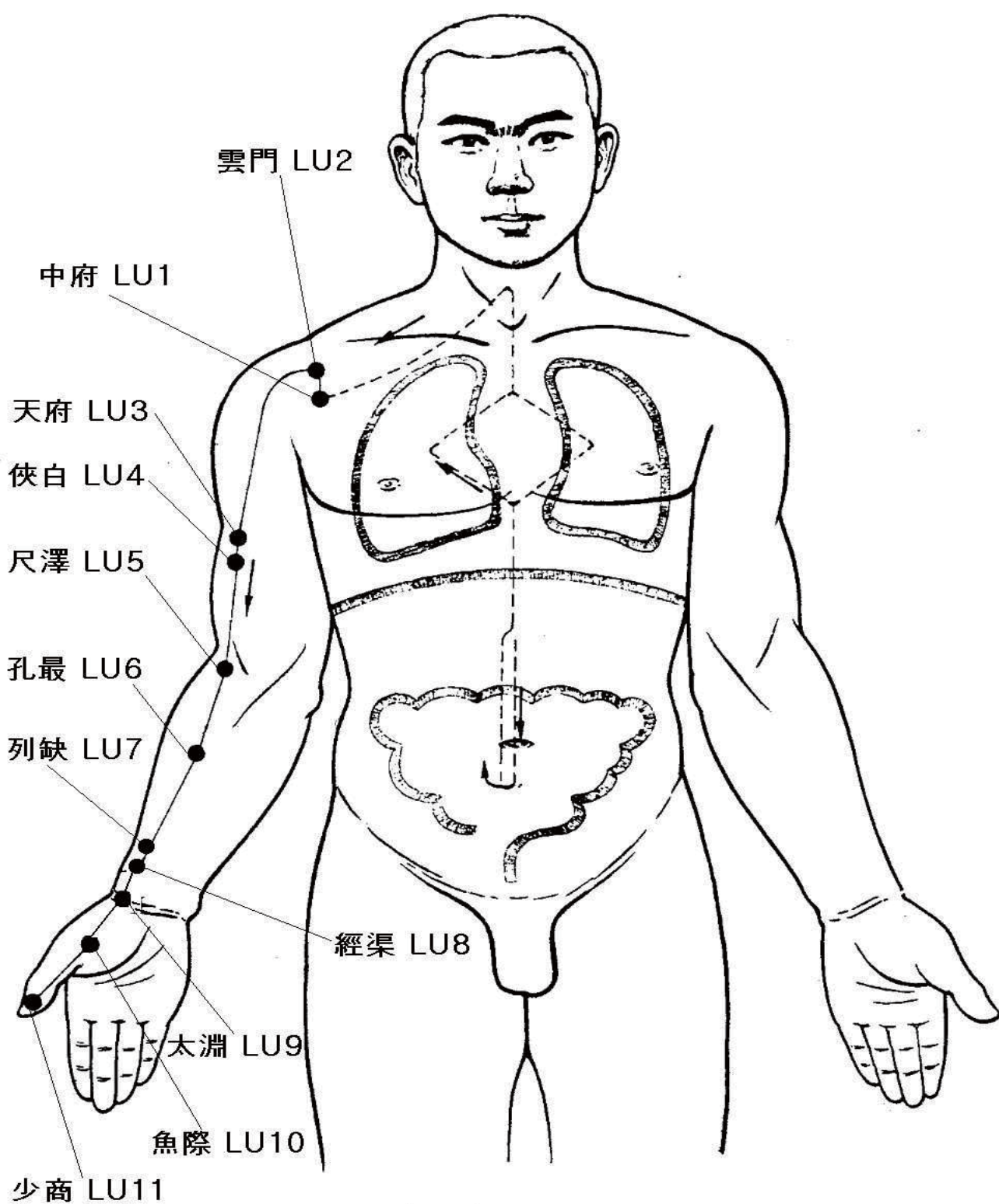
胸部의 氣街 : 胸前 兩方의 膺部(또는 胸部의 募穴)와 心俞・肺俞 : 背俞穴, 腹募穴

腹部의 氣街 : 肝俞・脾俞・腎俞와 衝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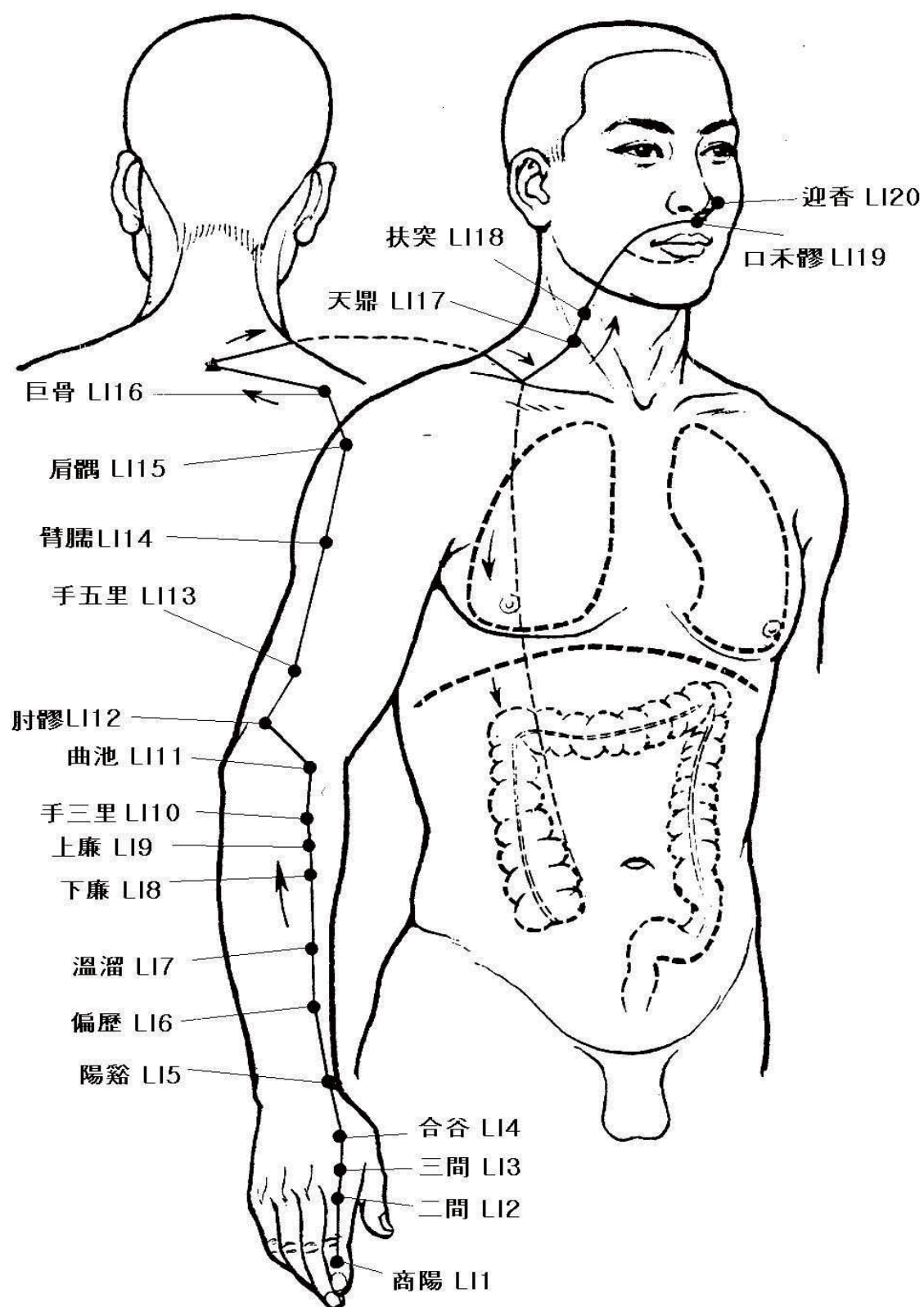
脛部의 氣街 : 氣衝穴과 承山穴 및 足踝의 上下處 : 六腑下合穴

◆ 十二經脈 流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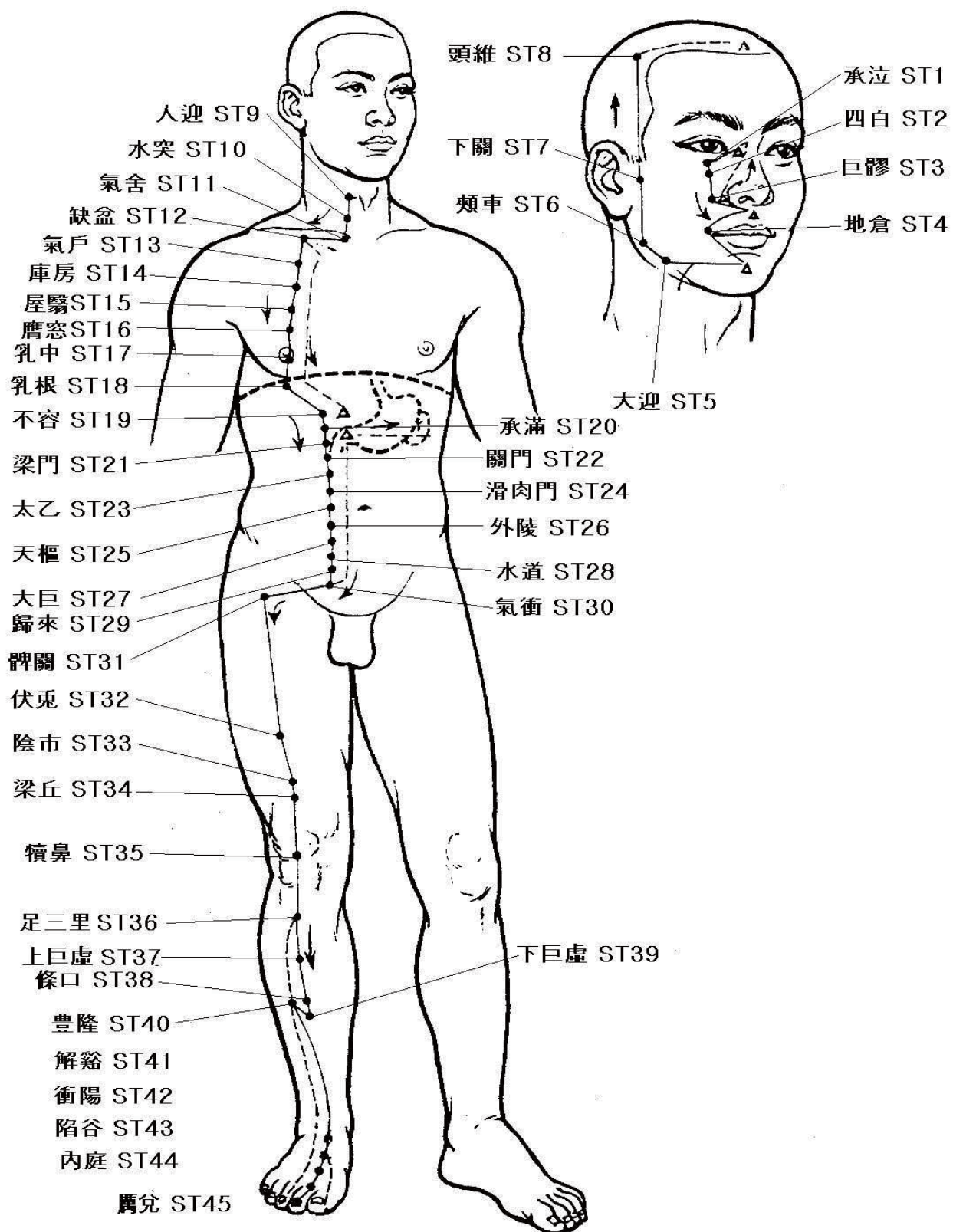
肺手太陰之脈	起於中焦 _하 下絡大腸 _{하고} 還循胃口 _하 上膈屬肺 _{하고} 從肺系橫出腋 _下 _하 下循膺內 _하 行少陰心主之前 _하 下肘中 _{하고} 循臂內 上骨下廉 _하 入寸口 上魚 _{하고} 循魚際 _하 出大指之端 _하 이라 其支者 _는 從腕後直出次指內廉 _하 出其端 _하 이라
大腸手陽明之脈	起於大指次指之端 _하 循指上廉 _하 出合谷兩骨之間 _하 上入兩筋之中 _하 循臂上廉 _하 入肘外廉 _하 上膺外前廉 _하 上肩 _하 出髃骨之前廉 _하 上出於柱骨之會上 _하 下入缺盆 _하 絡肺 _{하고} 下膈屬大腸 _하 이라 其支者 _는 從缺盆上頸 _하 貫頰 _하 入下齒中 _하 還出挾口 _하 交人中 _하 左之右 _{하고} 右之左 _하 上挾鼻孔 _하 이라
胃足陽明之脈	起於鼻(之)交頰中 _하 旁納太陽之脈 _하 下循鼻外 _하 入上齒中 _하 還出挾口環唇 _{하고} 下交承漿 _{하고} 却循頤後下廉 _하 出大迎 _하 循頰車 _하 上耳前 _하 過客主人 _하 循髮際 _하 至額顙 _하 라 其支者 _는 從大迎前下人迎 _하 循喉嚨 入缺盆 _하 下膈 _하 屬胃 _{하고} 絡脾 _하 라 其直者 _는 從缺盆下乳內廉 _하 下挾臍 _하 入氣街中 _하 이라 其支者 _는 起於胃口 _하 下循腹裏 _하 下至氣街中而合 _하 以下髀關 _하 抵伏兔 _하 下(入)膝膕中 _하 下循脛外廉 _하 下足跗 _하 入中指內間 _하 이라 其支者 _는 下膝[廉]三寸而別 _하 下入中指外間 _하 이라 其支者 _는 別跗上 _하 入大指間出其端 _하 이라
脾足太陰之脈	起於大指之端 _하 循指內側白肉際 _하 過核骨後 _하 上內踝前廉 _하 上踰[膕]內 _하 循脛骨後 _하 交出厥陰之前 _하 上(循)膝股內前廉 _하 入腹 _하 屬脾 _{하고} 絡胃 _하 上膈挾咽 _하 連舌本 _{하고} 散舌下 _하 其支者 _는 復從胃 _하 別上膈 _하 注心中 _하 이라
心手少陰之脈	起於心中 _하 出屬心系 _하 下膈 絡小腸 _하 其支者 _는 從心系 _하 上挾咽 _하 繫目系 _하 其直者 _는 復從心系却上肺 _하 (下)出腋 _下 _하 [下]循膺內後廉 _하 行太陰心主之後 _하 下肘內 _하 循臂內後廉 _하 抵掌後銳骨之端 _하 入掌內(後)廉 _하 循小指之內 _하 出其端 _하 이라
小腸手太陽之脈	起於小指之端 _하 循手外側 _하 上腕 _하 出踝中 _하 直上循臂骨下廉 _하 出肘內側兩筋之間 _하 上循膺外後廉 _하 上肩解 _하 繞肩胛 _하 肩上 _하 入缺盆 _하 絡心 _{하고} 循咽下膈抵胃 _하 屬小腸 _하 이라 其支者 _는 從缺盆循頸上頰 _하 至目銳眥 _하 却入耳中 _하 이라 其支者 _는 別頰上顙 _하 抵鼻 _하 至目內眥 _하 斜絡於顙 _하 이라
膀胱足太陽之脈	起於目內眥 _하 上額交顙 _하 이라 其支者 _는 從顙至耳上角 _하 이라 其直者 _는 從顙入絡腦 _하 還出別下項 _하 循肩膊內 _하 挾脊 _하 抵腰中 _하 入循膂 _하 絡腎 _{하고} 屬膀胱 _하 이라 其支者 _는 從腰中下挾脊 _하 貫臀 _하 入膕中 _하 이라 其支者 _는 從膊內左右 _하 別下貫胛 _하 挾脊內 _하 過髀樞循髀外 _하 從後廉下合膕中 _하 以下貫腓內 _하 出外踝之後 _하 循京骨 _하 至小指外側 _하 이라
腎足少陰之脈	起於小指之下 _하 邪走足心 _하 出於然谷之下 _하 循內踝之後 _하 別入跟中 _하 以上踰內 _하 出膕內廉 _하 上股內後廉 _하 貫脊 _하 屬腎 _{하고} 絡膀胱 _하 이라 其直者 _는 從腎上貫肝膈 _하 入肺中 _하 循喉嚨 _하 挾舌本 _하 이라 其支者 _는 從肺出絡心 _하 注胸中 _하 이라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起於胸中 _하 出屬心包絡 _하 下膈 _하 歷絡三焦 _하 其支者 _는 循胸出脇 _하 下腋三寸 _하 上抵腋 _하 下循膺內 _하 行太陰少陰之間 _하 入肘中 _하 下臂 _하 行兩筋之間 _하 入掌中 _하 循中指出其端 _하 이라 其支者 _는 別掌中 _하 循小指次指 _하 出其端 _하 이라
三焦手少陽之脈	起於小指次指之端 _하 上出兩指之間 _하 循手表腕 _하 出臂外兩骨之間 _하 上貫肘 _하 循膺外 _하 上肩而交出足少陽之後 _하 入缺盆 _하 布膻中 _하 散絡心包 _하 下膈 _하 循屬三焦 _하 其支者 _는 從膻中上出缺盆 _하 上項 _하 繫耳後直上 _하 出耳上角 _하 以屈下頰至顙 _하 이라 其支者 _는 從耳後入耳中 _하 出走耳前 _하 過客主人前 _하 交頰 _하 至目銳眥 _하 라
膽足少陽之脈	起於目銳眥 _하 上抵頭角 _하 下耳後 _하 循頸 _하 行手少陽之前 _하 至肩上 却交出手少陽之後 _하 入缺盆 _하 이라 其支者 _는 從耳後入耳中 _하 出走耳前 _하 至目銳眥後 _하 라 其支者 _는 別銳眥 _하 下大迎 _하 合於手少陽 _하 抵於顙 _하 下加頰車 _하 下頸 _하 合缺盆 _하 以下胸中 _하 貫膈 _하 絡肝 _{하고} 屬膽 _하 循脇裏 _하 出氣街 _하 繞毛際 _하 橫入髀厭中 _하 이라 其直者 _는 從缺盆下腋 _하 循胸 _하 過季脇 _하 下合髀厭中 以下循髀陽 _하 出膝外廉 _하 下外輔骨之前 _하 直下抵絕骨之端 _하 下出外踝之前 _하 循足跗上 _하 入小指次指之間 _하 이라 其支者 _는 別跗上 _하 入大指之間 _하 循大指歧骨內 _하 出其端 _하 還貫爪甲 _하 出三毛 _하 라
肝足厥陰之脈	起於大指叢毛之際 _하 上循足跗上廉 _하 去內踝一寸 _하 上踝八寸 _하 交出太陰之後 _하 上膕內廉 _하 循股陰 _하 入毛中 _하 過陰器 _하 抵小腹 _하 挾胃屬肝 _하 絡膽 _{하고} 上貫膈 _하 布脇肋 _하 循喉嚨之後 _하 上入頰頰 _하 連目系 _하 上出額 _하 與督脈會於顙 _하 이라 其支者 _는 從目系下頰裏 _하 環唇內 _하 其支者 _는 復從肝 _하 別貫膈 _하 上注肺 _하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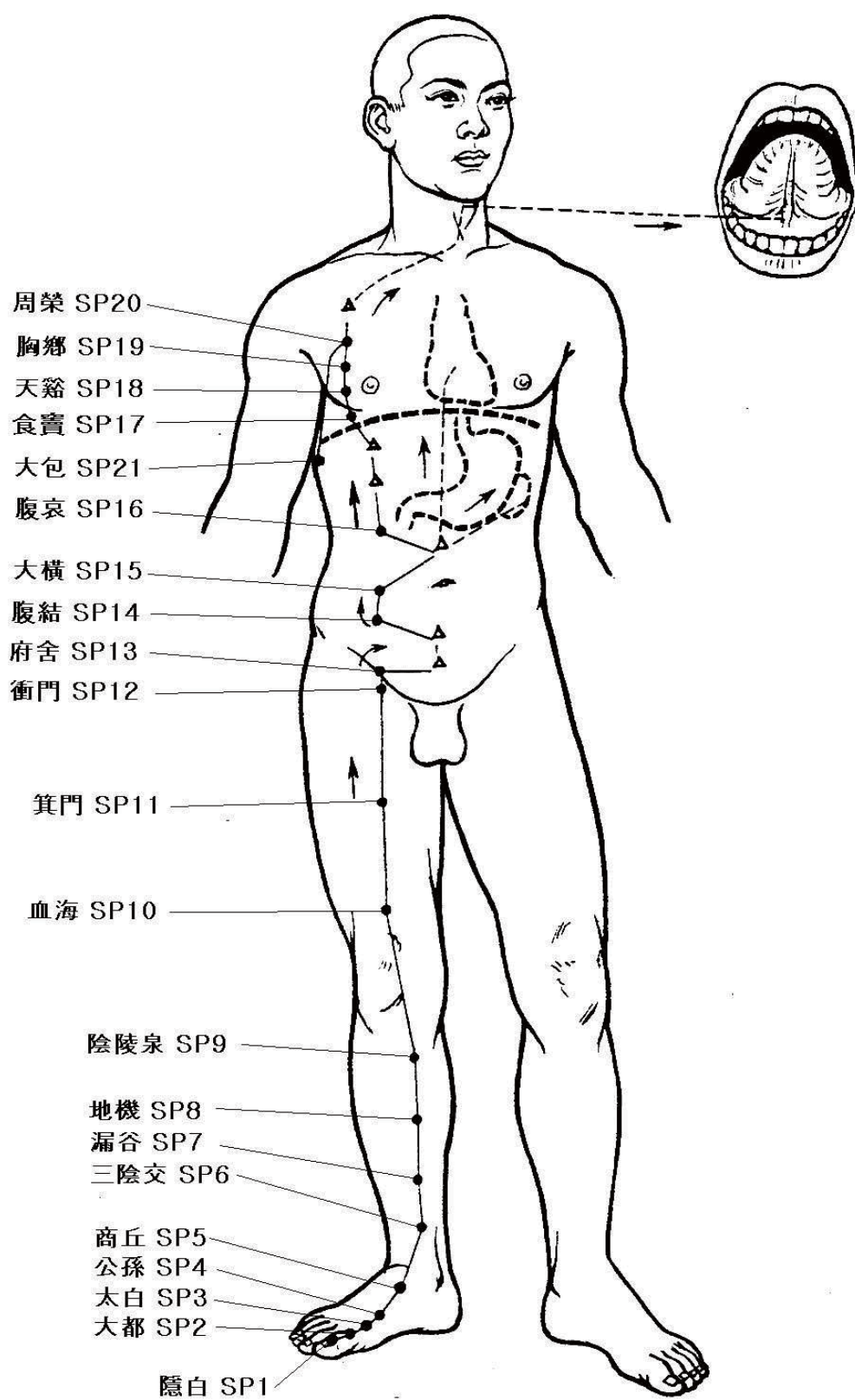
手太陰肺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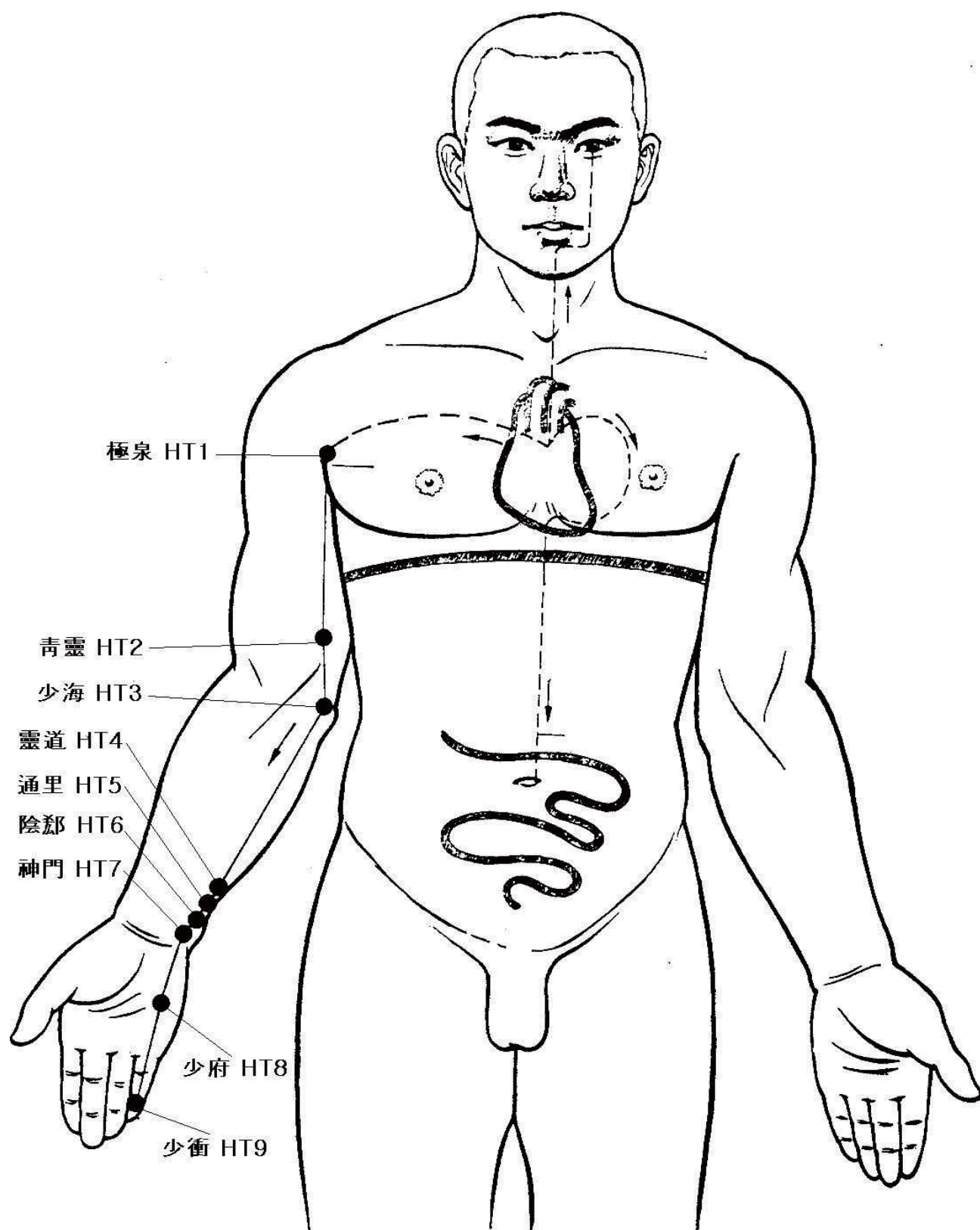
手陽明大腸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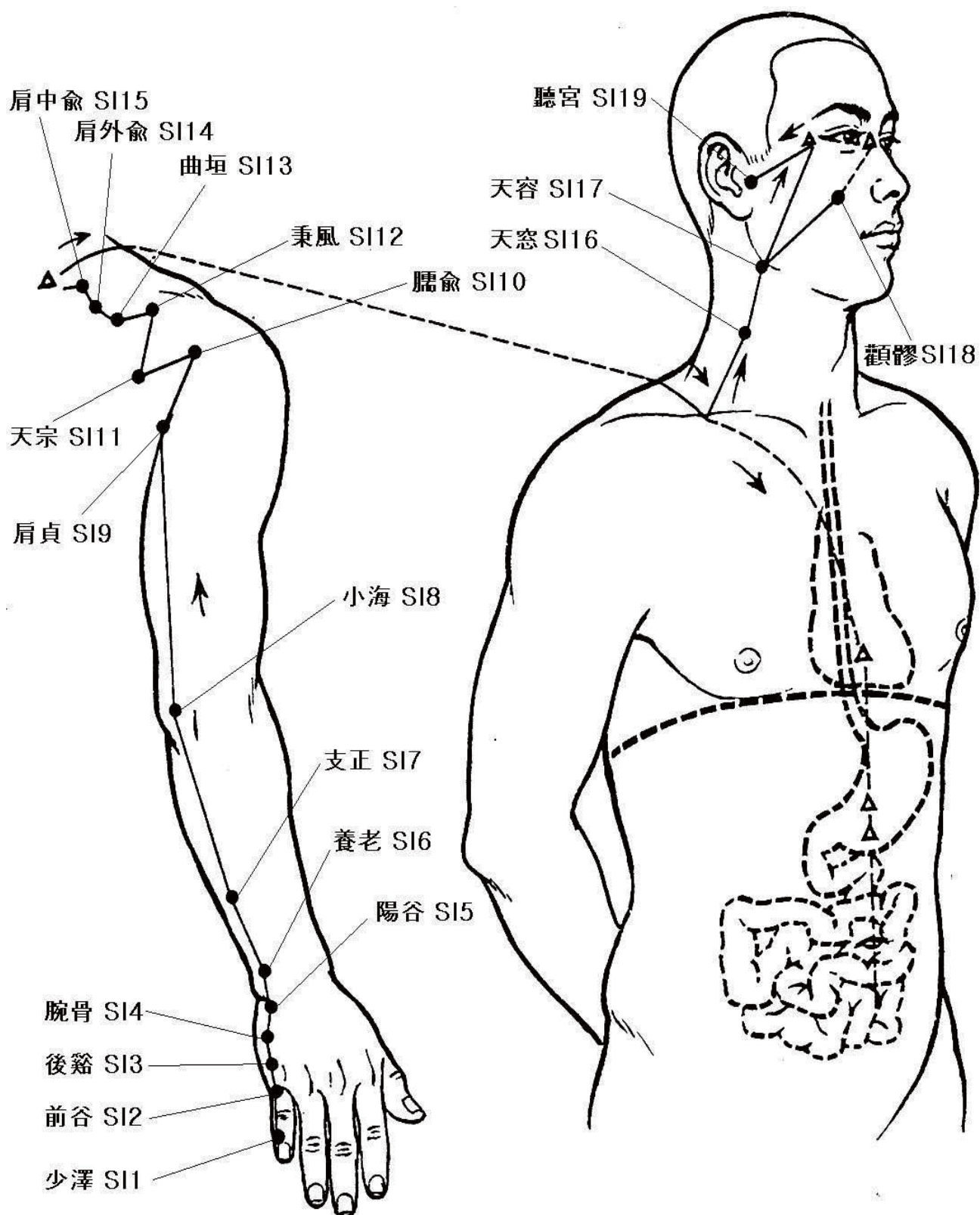
足陽明胃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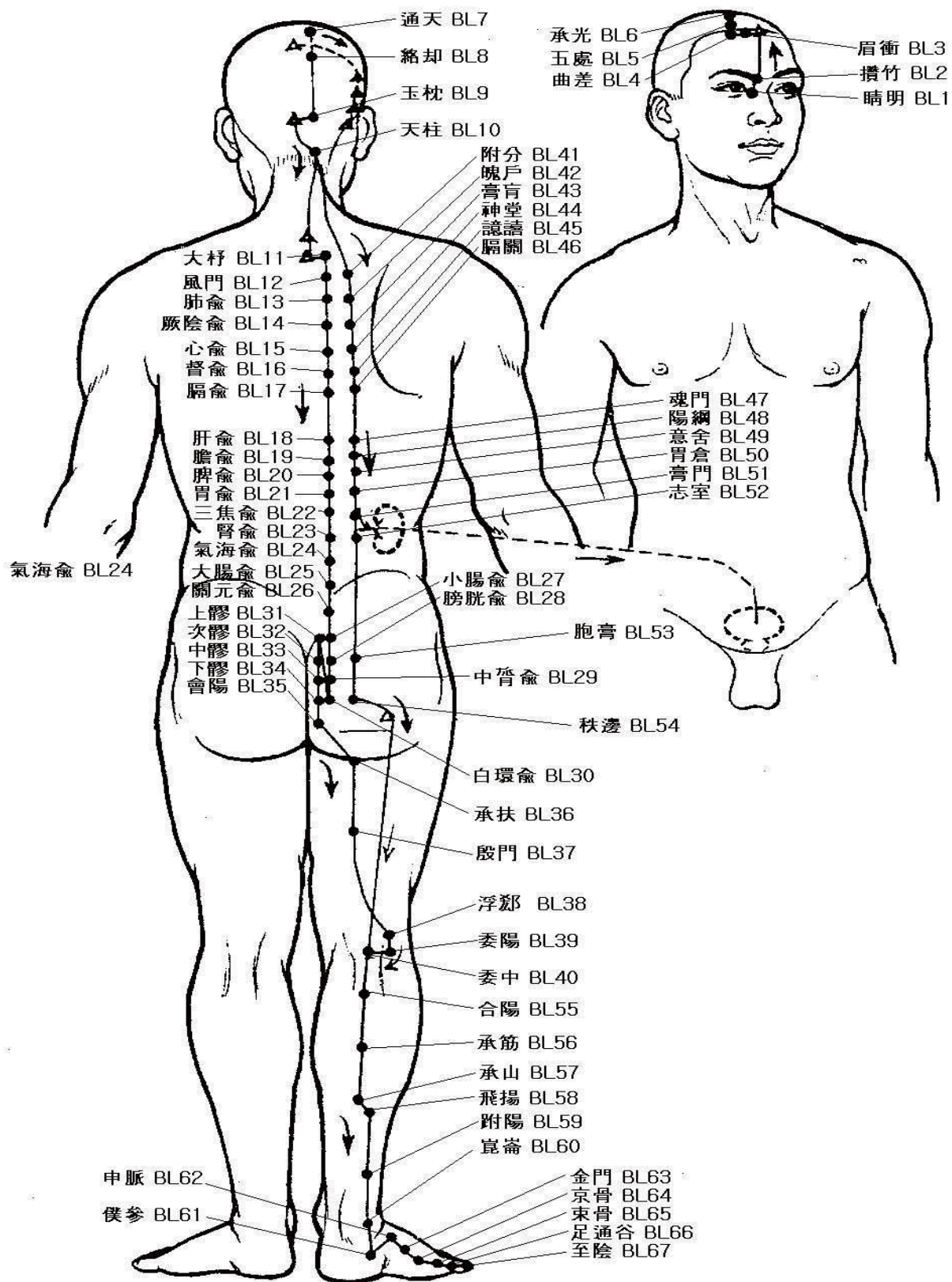
足太陰脾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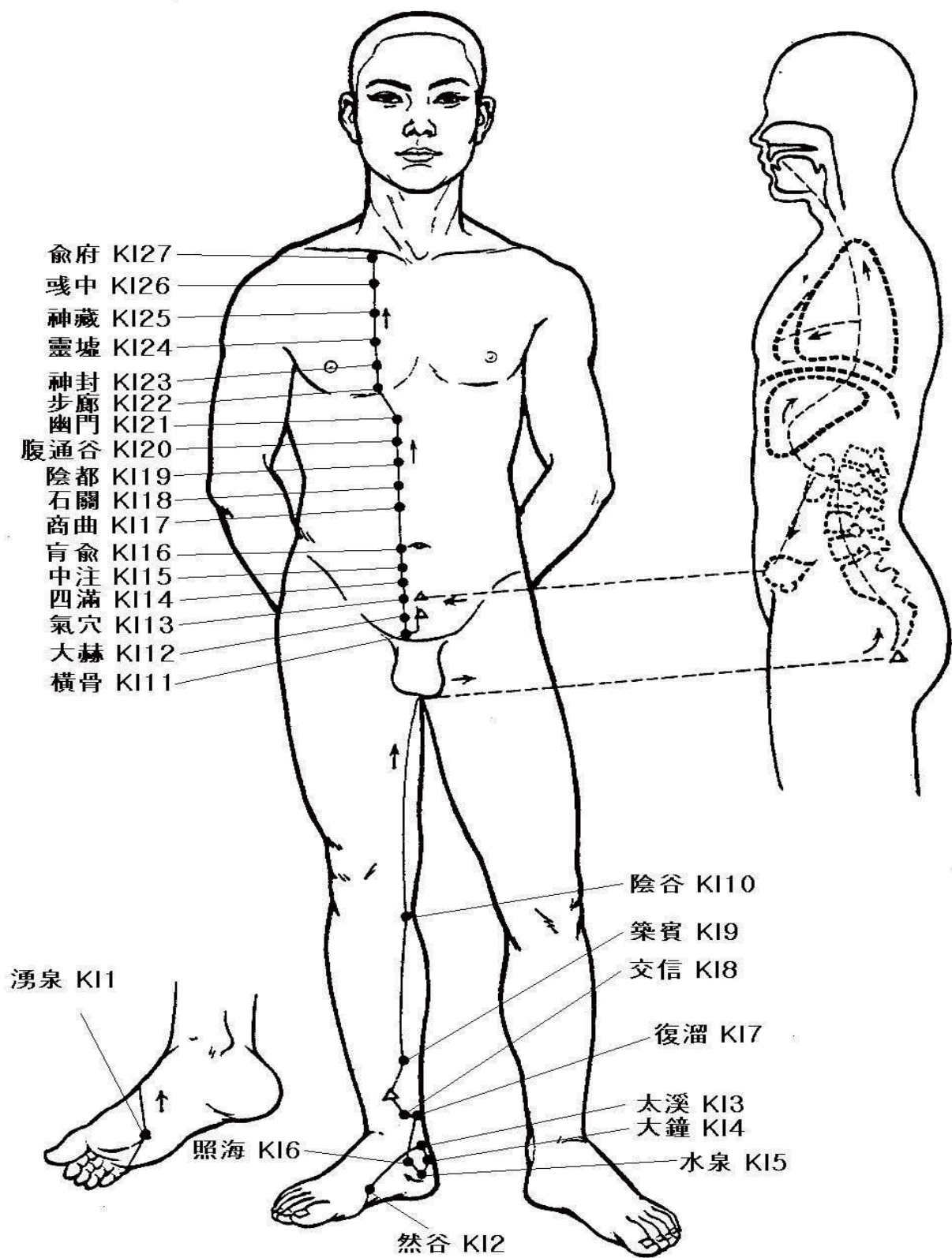
手少陰心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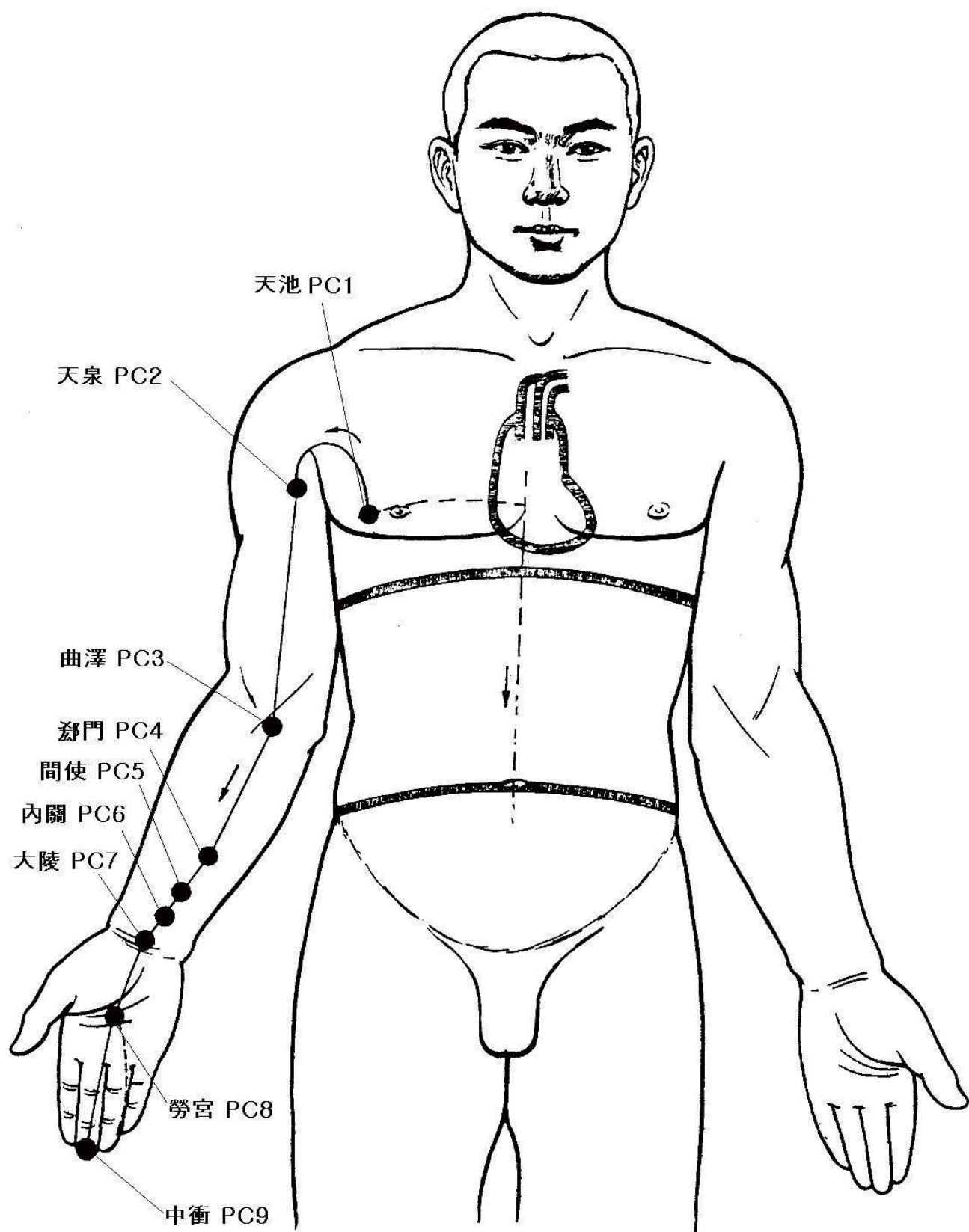
手太陽小腸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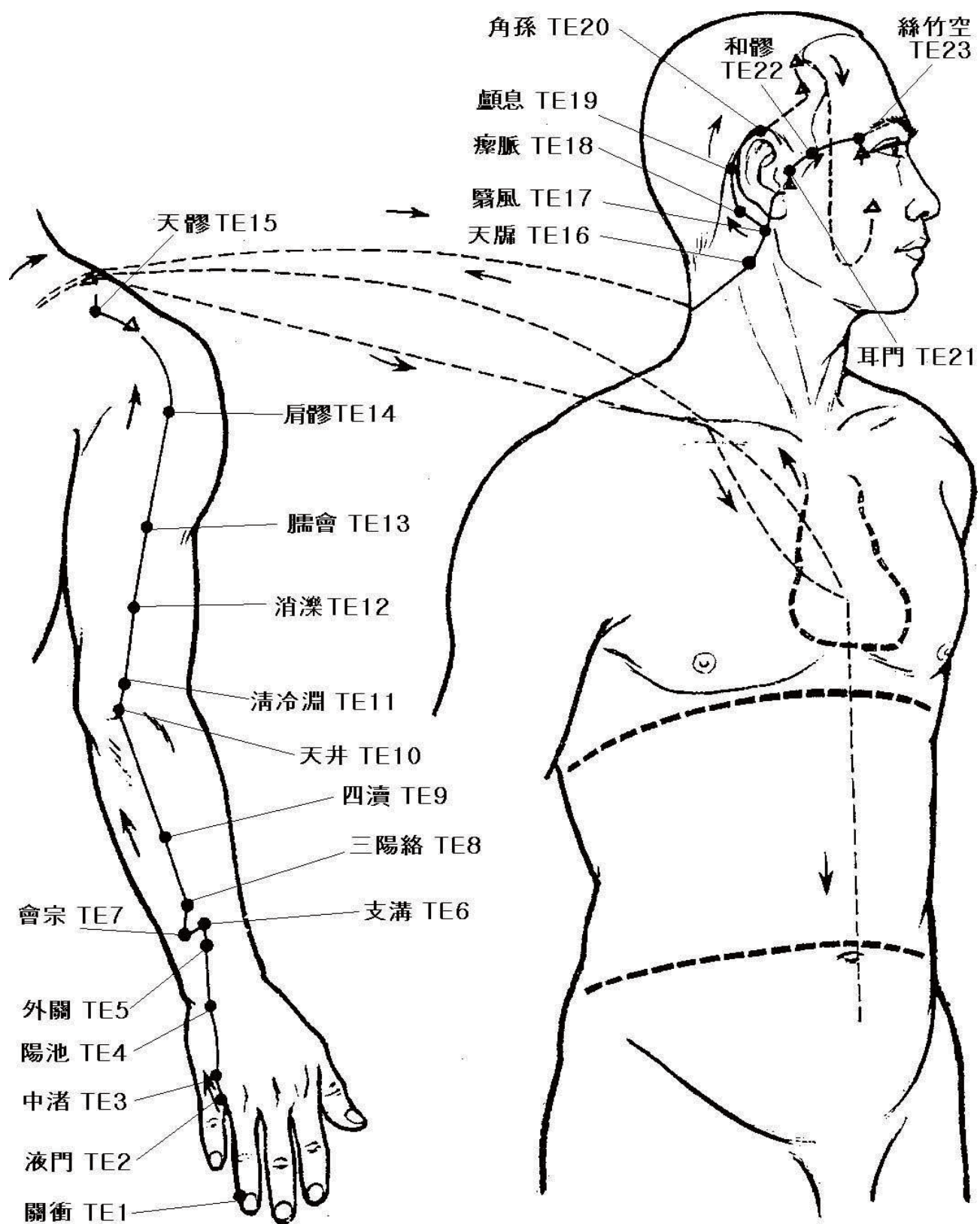
足太陽膀胱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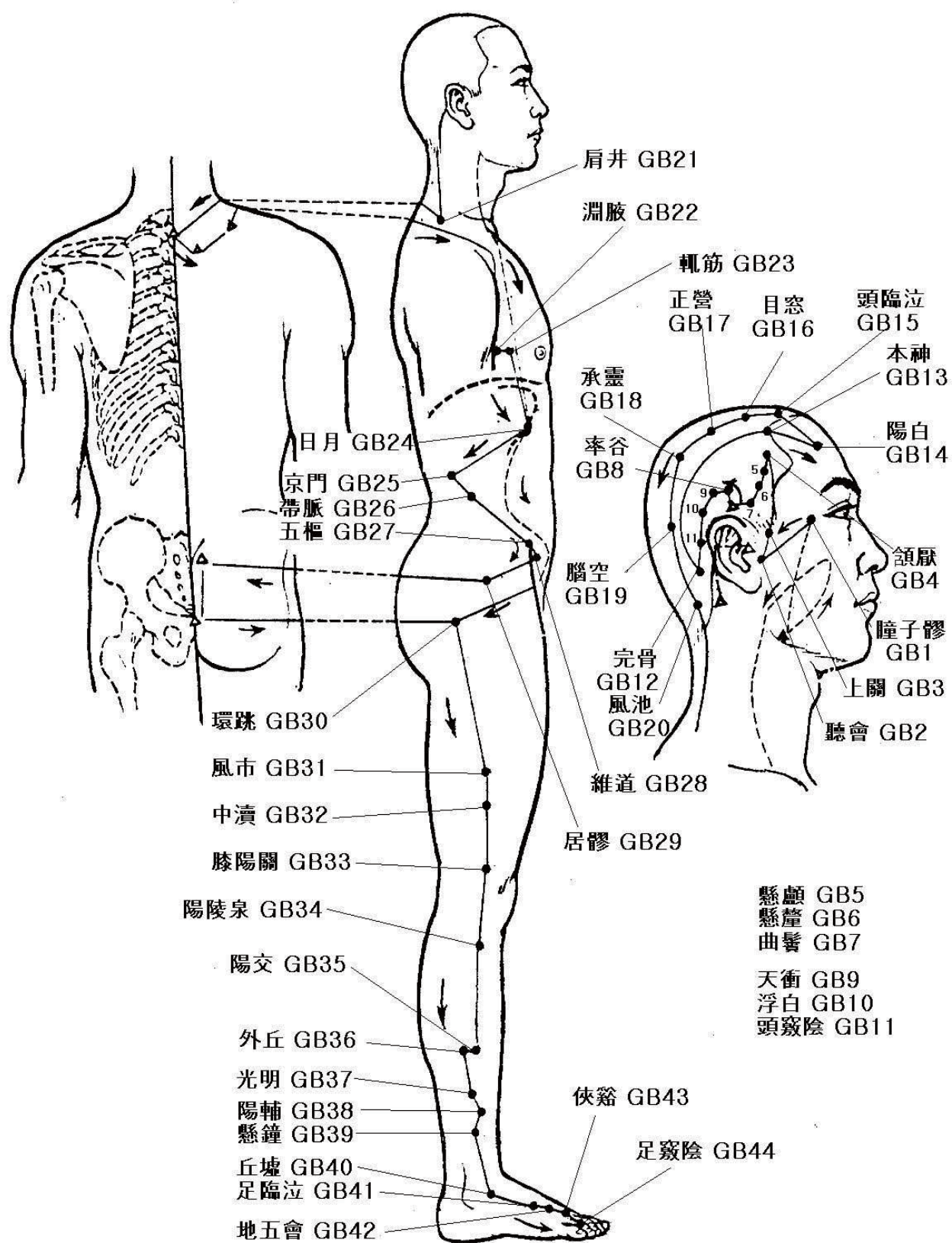
足少陰腎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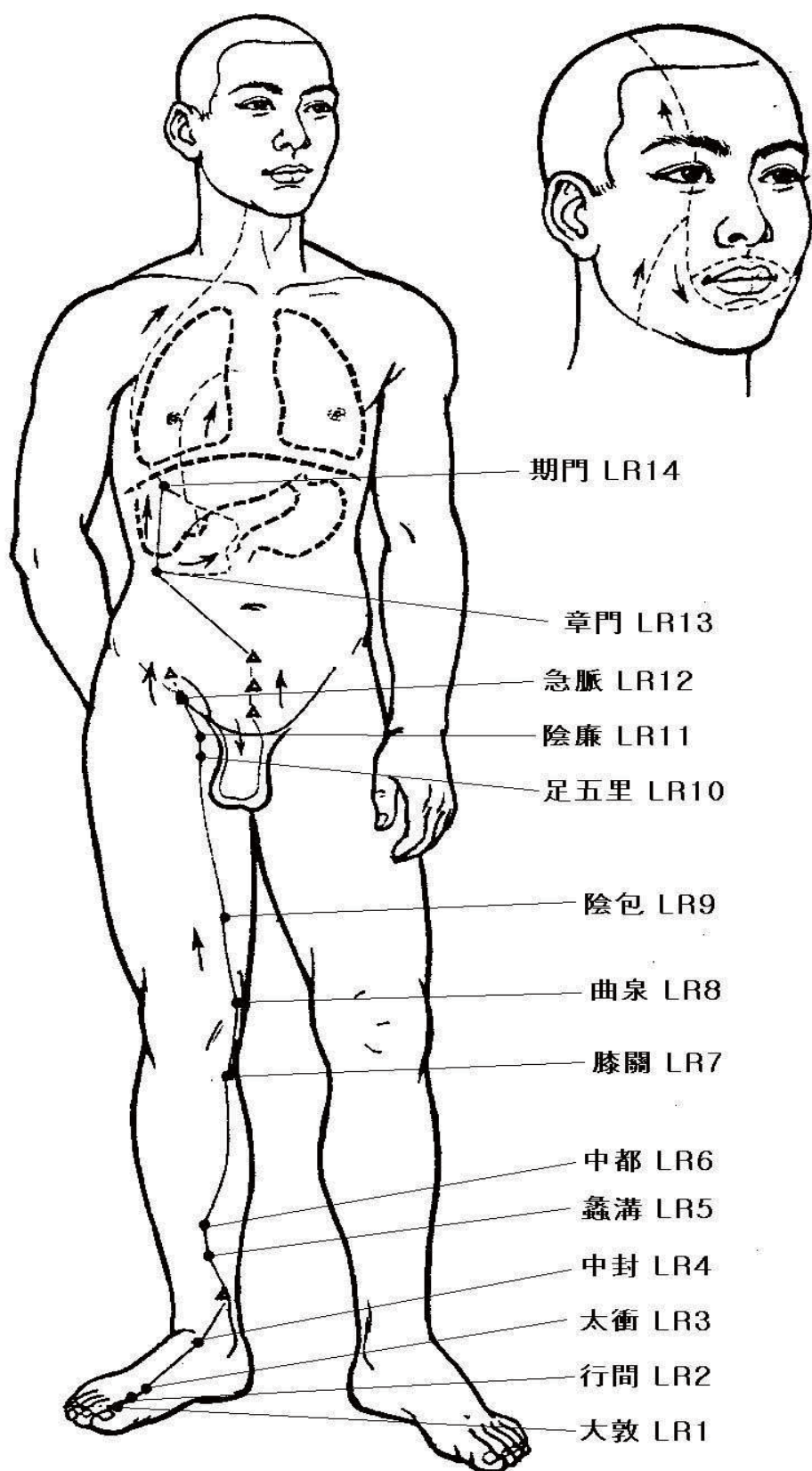
手厥陰心包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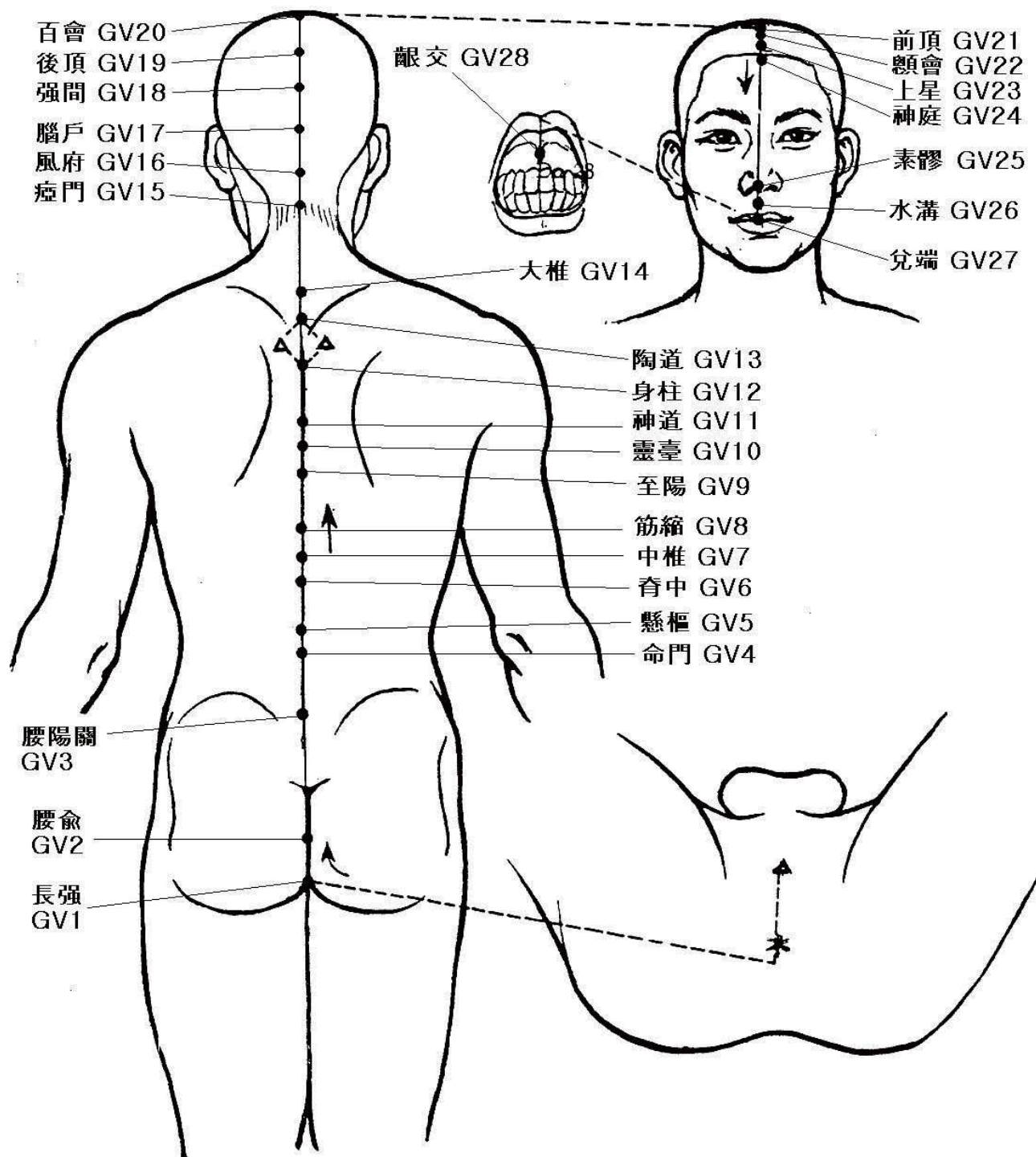
手少陽三焦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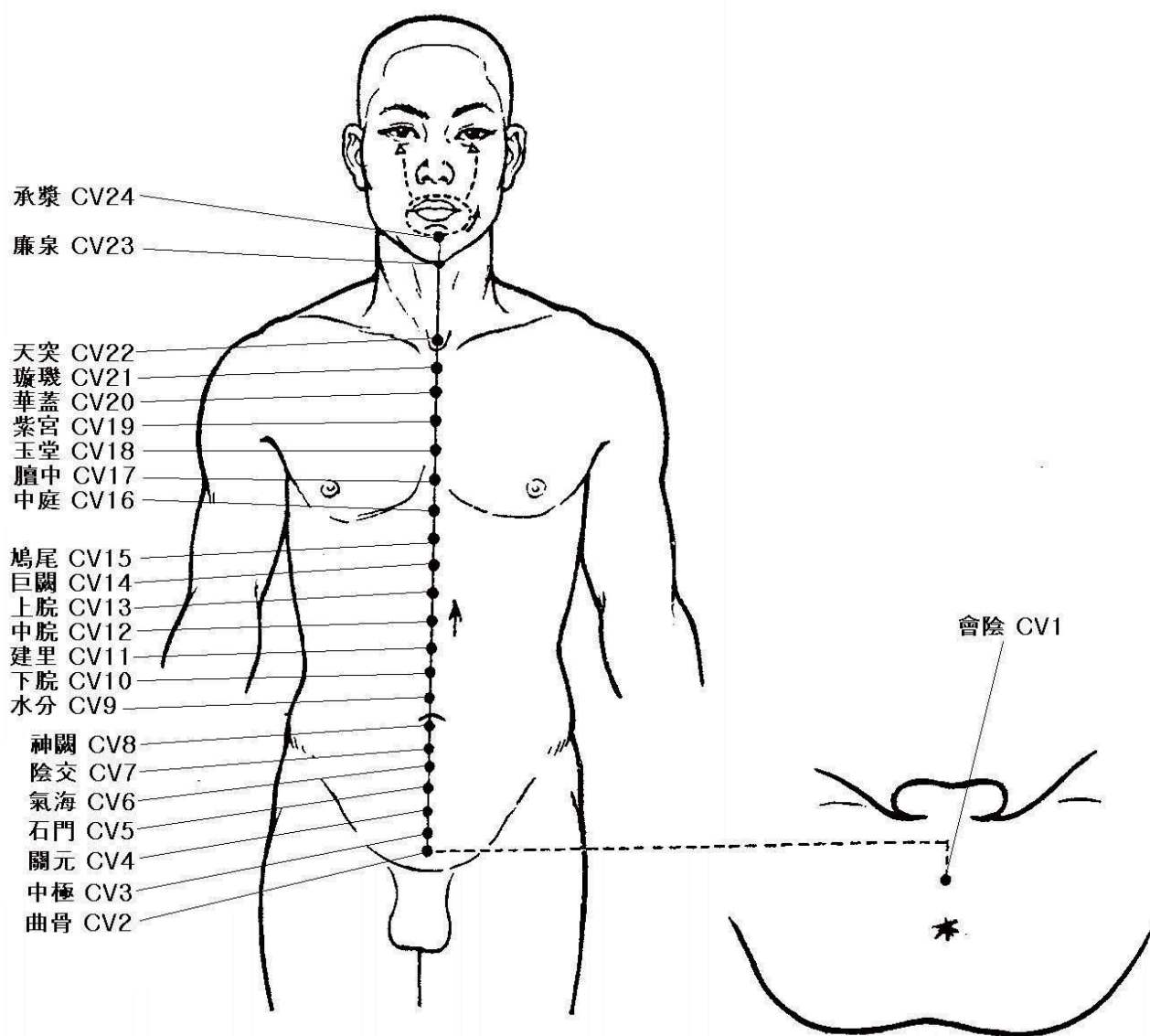
足少陽膽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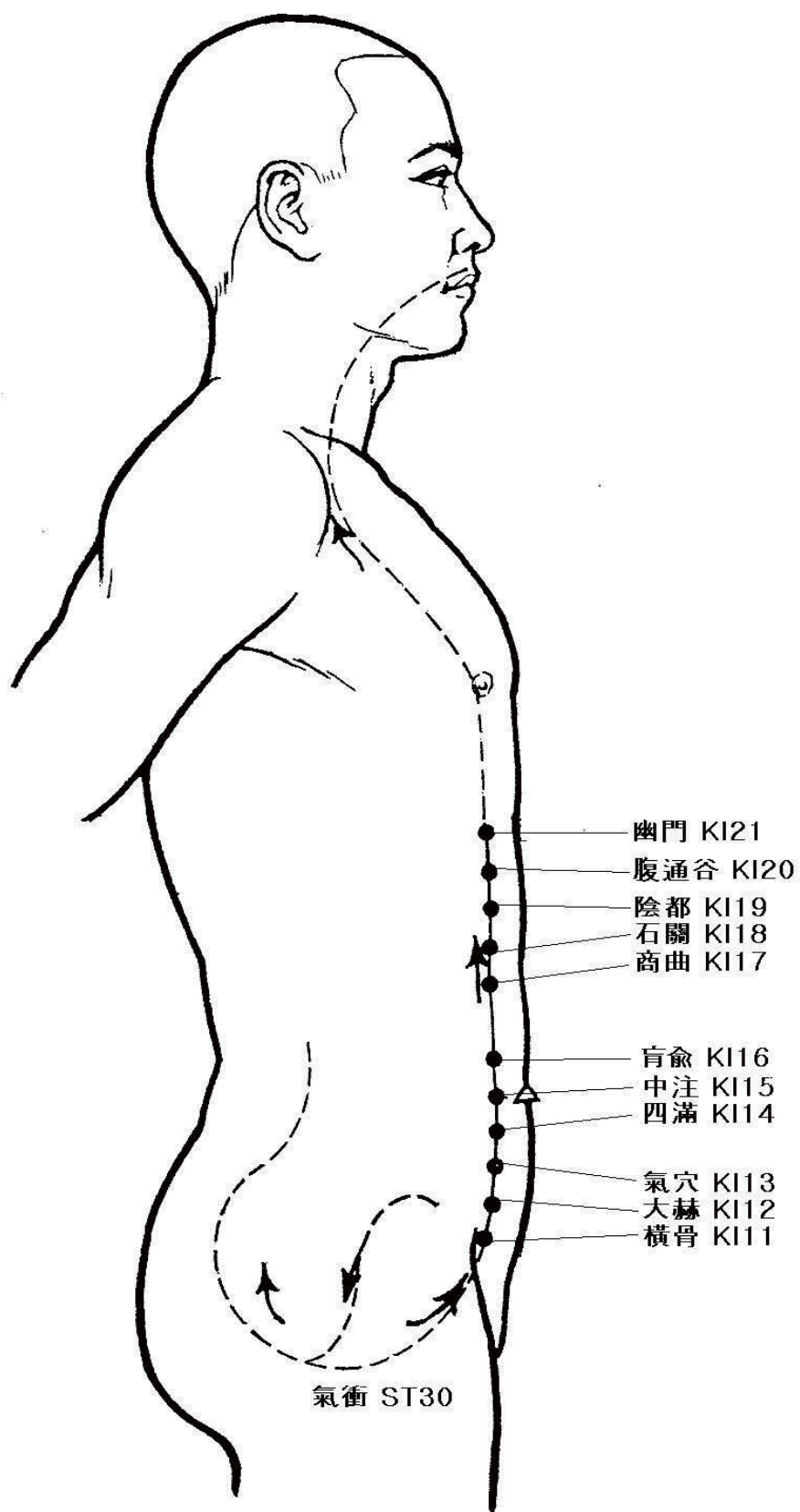
足厥陰肝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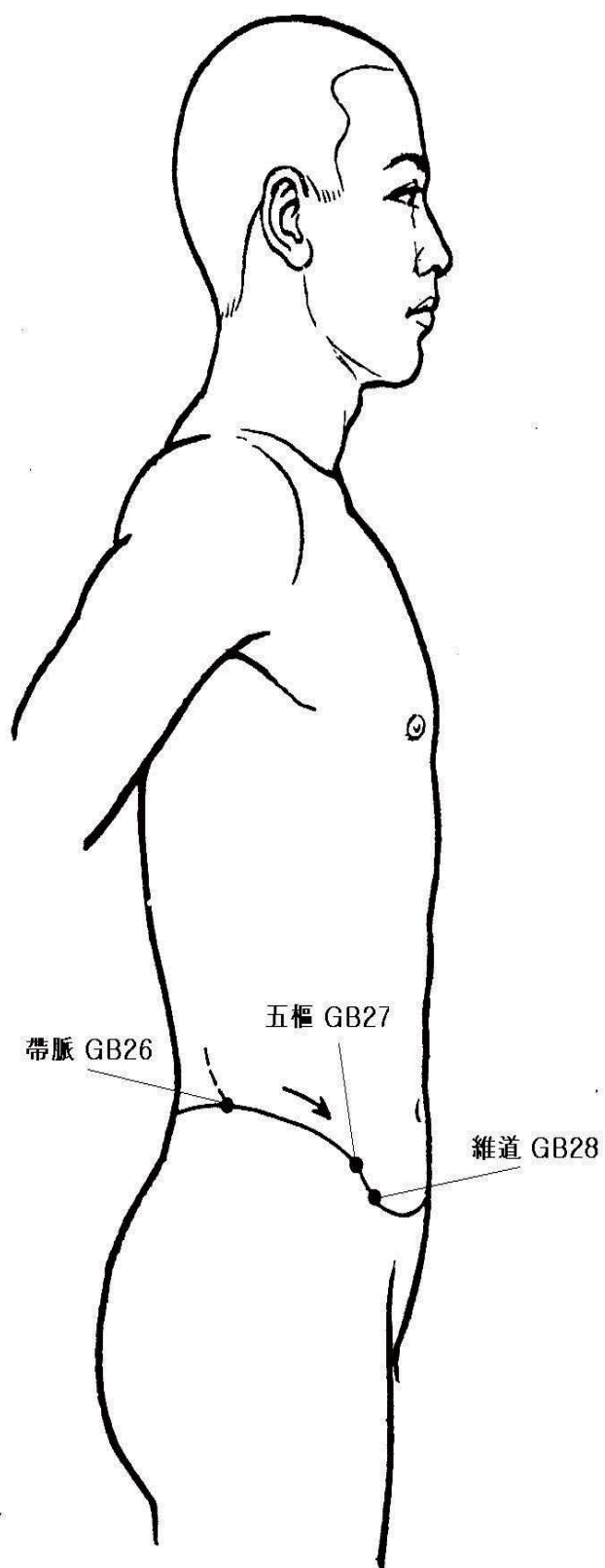
督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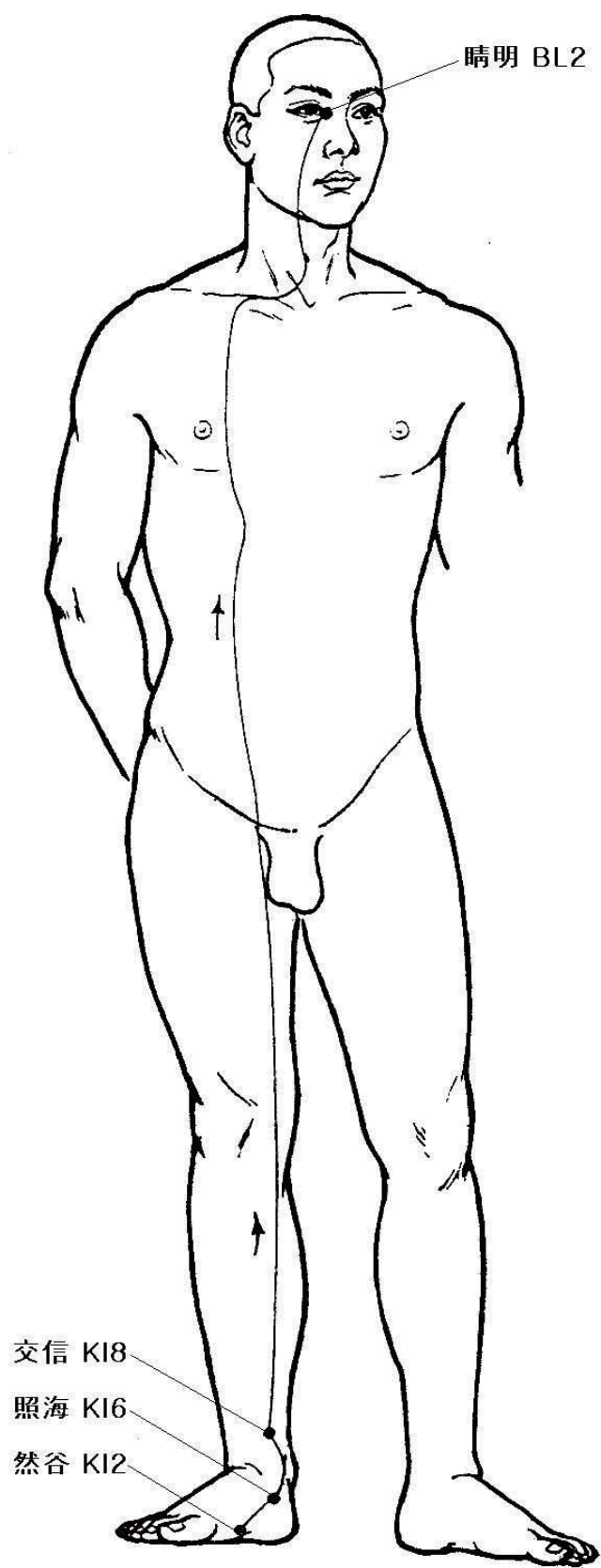
任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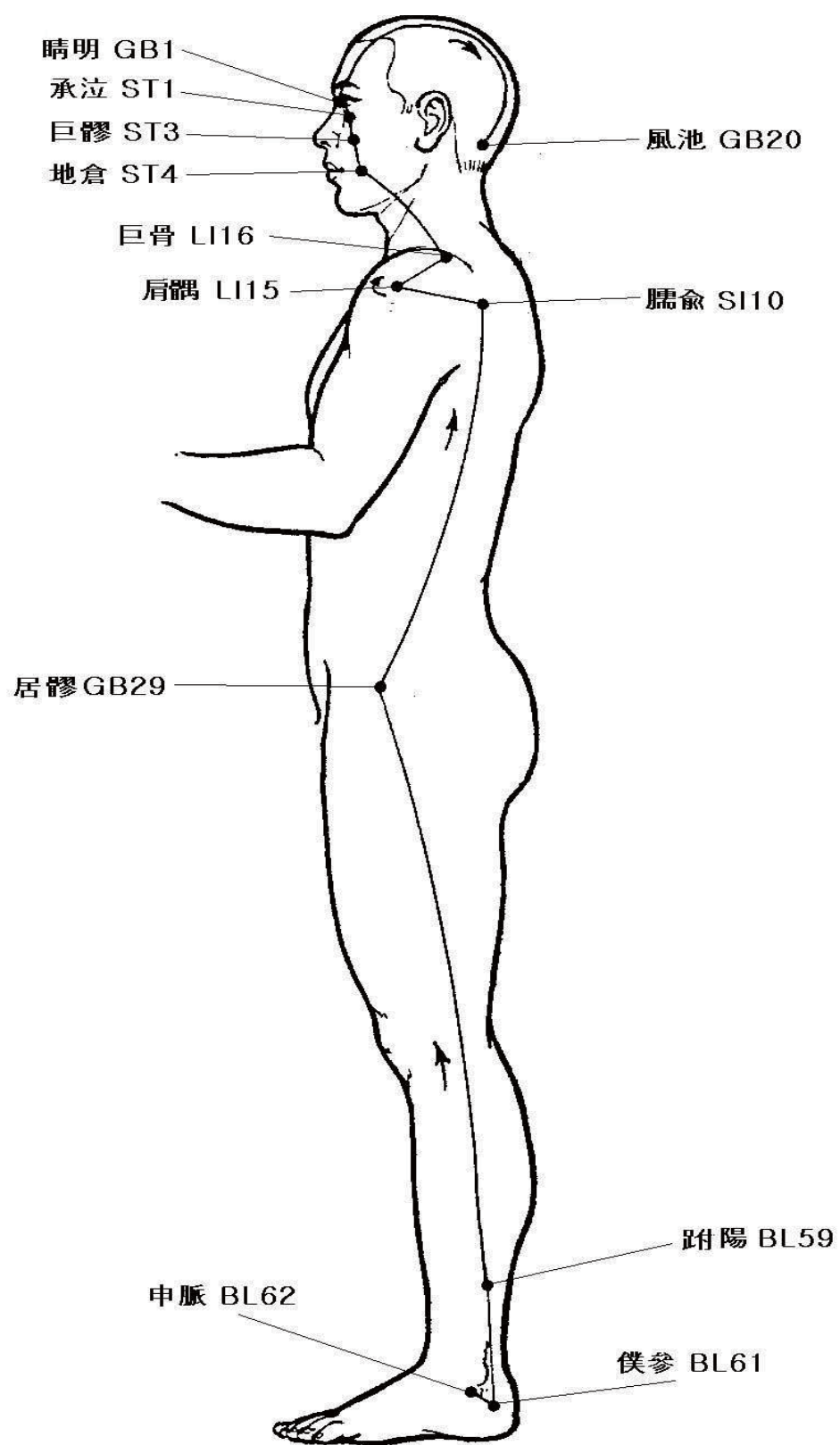
衝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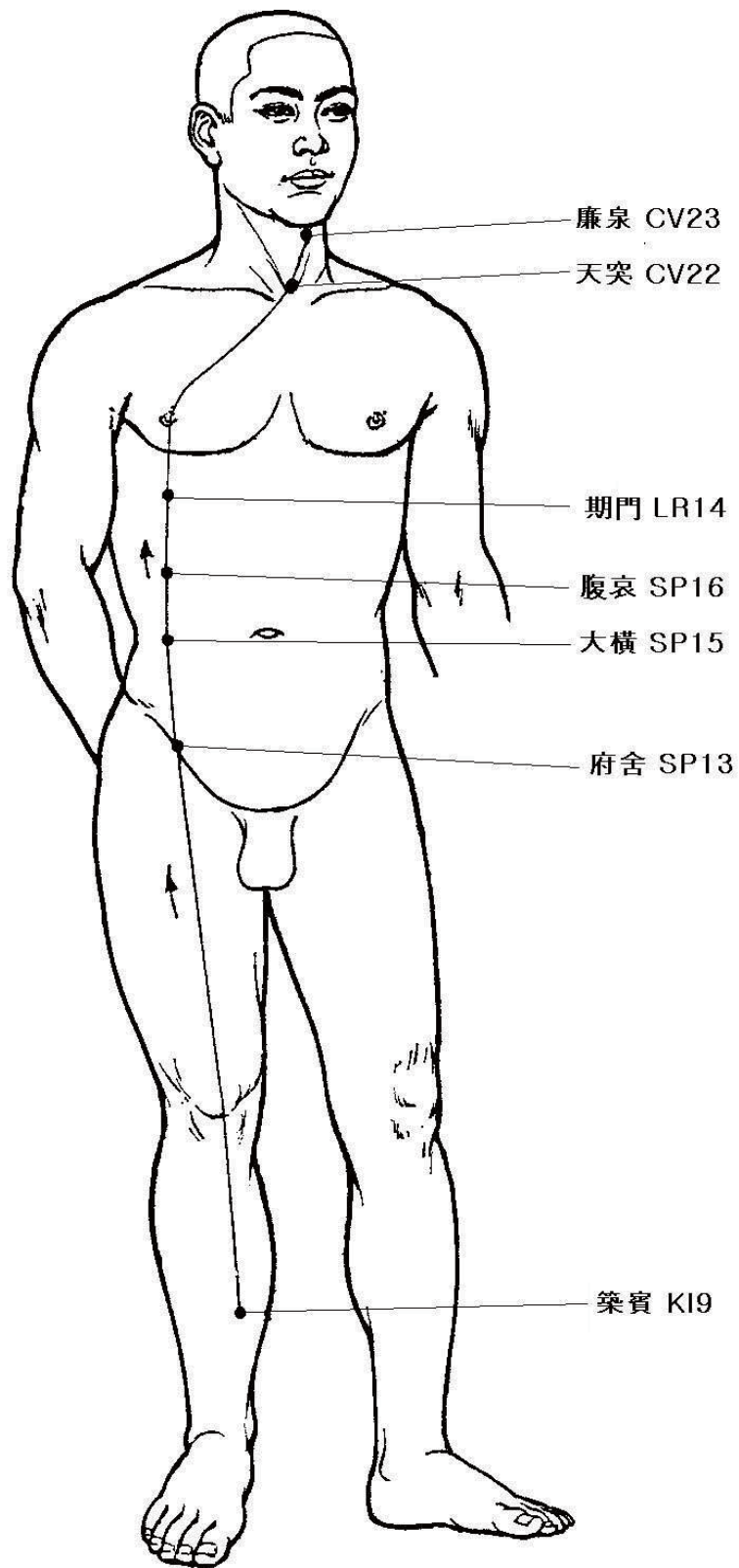
帶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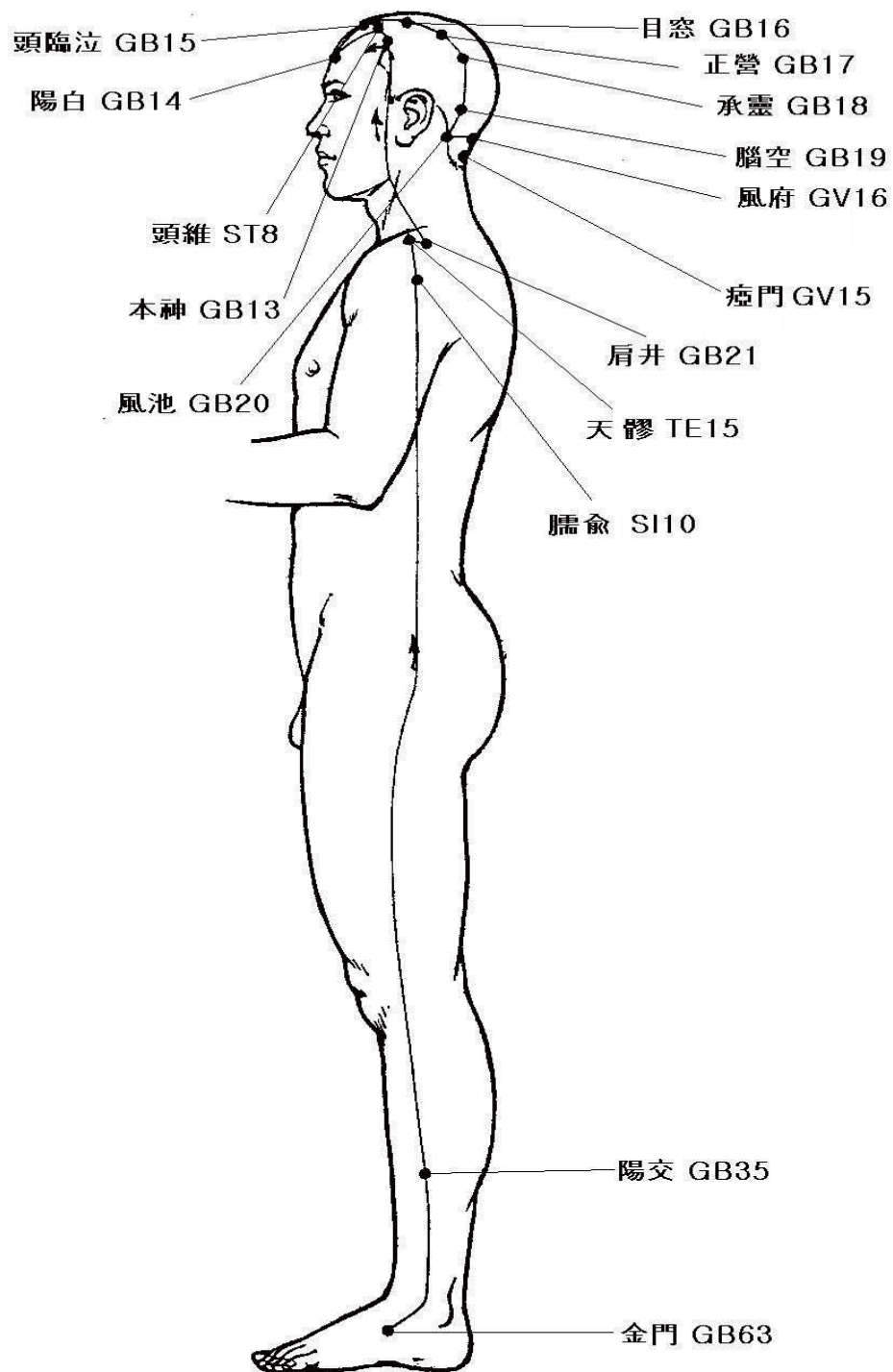
陰蹻脈



陽蹻脈



陰維脈



陽維脈

※經脈 관련 출제 예상

經脈이 시작하는 부위는? 中焦(肺手太陰之脈 起於中焦)

下肢 8寸 이하 부위에서의 순행은? 肝脾腎經(下肢 8寸 이상 부위에서의 순행은? 脾肝腎經)

任脈의 終止하는 부분은? 目眶下

下齒로 들어가는 經脈은? 手陽明大腸經 (上齒는 足陽明胃經)

目外眥에서 起始하는 經脈은? 足少陽膽經

上肢內側前緣을 순행하는 經絡은? 手太陰肺經

內踝 上 8寸이하에서 下肢 內側 前緣을 순행하는 經脈은? 足厥陰肝經

頭面部에서 足趾末端으로 순행하는 經脈은? 膽胃膀胱經(足三陽經)

足趾에서 胸으로 순행하는 經脈은? 脾肝腎經(足三陰經)

頭面으로 순행하지 않는 經脈은? 肺經, 心包經

腦,髓,腎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督脈

三焦經이 순행하는 곳은? 上肢外側中間

喉嚨과 연계되는 經脈은? 肺經, 腎經, 胃經 cf)脾經은 단지 挾咽, 肝經은 循喉嚨之後 上入顙額

肝經과 연계되는 장부는? 膽, 膈, 肝, 胃

腎經 “ ” ? 腎, 膀胱, 肝, 膈, 心

目系에 聯系하는 經脈은? 心經, 肝經,

舌에 도달하는 經脈은? 脾經, 腎經

耳中 - 三焦經, 小腸經, 膽經

齒牙와 연계되는 十二經脈은? 胃經, 大腸經

奇經八脈 중 別絡이 존재하는 것은? 任脈, 督脈

顙頂 - 膀胱經, 肝經, 督脈

繞脣口 - 胃經, 肝經, 衝脈, 督脈, 任脈

cf)同音이면서 漢文이 틀린 穴名 : 禾髎(大腸經), 和髎(三焦經),
期門(肝經), 箕門(脾經),
肩貞(小腸經), 肩井(膽經)
巨髎(胃經), 居髎(膽經)
小海(小腸經), 少海(心經)
天井(三焦經), 天鼎(大腸經)
完骨(膽經), 腕骨(小腸經)

제 7절 十二經別, 15絡脈, 奇經八脈, 十二經筋, 十二皮部

1. 12經別 : 經別은 깊게 흐르고 상하로 직행하는 경맥(經脈에서 分出하여 縱行하는 支脈)

cf) 淺層을 행하는 絡脈과 다름

① 機能 : - 十二經脈에서 別出한 別行의 正經

a. 十二經脈 表裏經의 연계關係를 強化(陰經經別은 陽經經別에 陷入됨)
(內(深部)를 主管)

b. 頭面部 經脈의 重要性을 높인다(十二經脈과 頭面部 연계 강화)

. 十二經脈 中 頭面部에는 주로 六陽經이 순행하는데,

經別은 六陰經이 六陽經에 合하여져 頭面部로 순행하여 六合형성

. 經脈의 氣血이 모두 面部로 흐른다는 이론적 근거 → 面鍼, 鼻鍼의 근거

c. 十二經脈의 분포와 연계부위를 稠密케 한다

. 體表와 體內, 四肢와 軀幹의 向心性 연계 강화(四肢에서 出→體腔에 入)

. 足三陰三陽經과 心臟의 연결을 강화 : 向心性 순행

. 足正經의 經脈不足을 보충

. 12經脈의 분포범위(主治範圍)를 확대

d. 十二經脈의 치료범위 확대

. 肛門病治療時 膀胱經의 承筋, 承山 穴位 활용 → 足太陽經別이 肛門과 연계됨

② 循行특징 :

- ‘離入出合’의 六合 형성(陰依附陽하는 형식) : 十二經脈의 四肢部分을 따라

別出하여(離), 體腔深部로 들어가고(入), 다시 體表로 淺出(出)하여 頭面으로

上行하며 陰經의 經別은 陽經의 經別과 合하여져 六陽經脈으로 分別注入됨(合)

- 四肢肘膝이상 부위에서 分出(淺-->深-->淺)

- 陽經은 同名의 陽經脈에 合하고,

陰經은 表裏關係의 陽經脈으로 合流하여 六合형성

2. 15 絡脈(別絡)

1)15絡脈의 구성:

■세 가지 學說:

① 靈樞 經脈篇 :十二經脈의 別絡 + 任脈, 督脈의 絡 + 脾의 大絡 (要 암기!!!)

② 難經 : 十二經脈의 別絡 + 陽絡(陽蹻脈의 絡) + 陰絡(陰蹻脈의 絡) + 脾之大絡

③ 醫門法律(喻昌) : 十二經脈의 別絡 + 奇經之大絡 + 胃之大絡 + 脾之大絡

■15絡脈의 名稱 :

手腕部에서 內側 : 列缺-內關-通里 足部에서 內側: 公孫-蠡溝-大鍾

手腕部에서 外側 : 偏歷-外關-支正 足部에서 外側: 豐隆-光明-飛揚

任脈之絡 - 鳩尾(尾翳), 督脈之絡 - 長強,

脾之大絡 - 大包, 胃之大絡 - 虛里

- 12 經脈에서 分出(手腕 혹은 足踝이상의 一位)하여 橫斜로 分支된 比較적 큰 絡脈

제 6 장 臟象論

●臟象論 概括

1. 정의 : ① 臟居於內 形見於外 故曰臟象(張介賓 類經)
② 人體內的 五臟六腑의 生理活動 및 病理變化의 外的反映.
③ 藏은 五臟六腑를 가리키고, 象은 臟腑의 形態와 機能의 外在的 表現을 가리킨다

2. 臟象學說의 形成과 基本特徵

- 1) 臟象學說의 形成基礎 ㉠고대의 解剖學 知識
㉡人體生理病理現象의 長期觀察
㉢醫療實踐經驗의 長期的 蓄積과 總結
- 2) 臟象學說의 基本特徵 : ‘臟象學說의 基本特徵은 五臟中心의 整體觀’

■ 이러한 整體觀이 나타나는 주요한 方面은?

- ①臟腑相爲表裏 : i. 臟腑經絡의 相互屬絡
ii. 十二經脈 四肢循行時의 陰陽部位 對應
iii. 生理機能上的 밀접한 配合 - ex) 폐의 宣肅과 大腸傳導 등
iv. 組織構成上的 直接 연결 - ‘脾胃, 肝膽, 腎膀胱’

②五臟과 形體諸竅의 整體性

③五臟의 生理活動과 精神情志의 연계에 의한 整體

3. 臟象의 分類 : ‘機能특징’의 차이에 따라

五臟 + 六腑 + 奇恒之府의 3종류로 구분

※ 生理機能上 分類

臟 : 藏精氣而不瀉也 故 滿而不能實(素問 五藏別論) => 化生작용, 精氣를 저장(精氣爲滿)
腑 : 傳化物而不藏 故 實而不能滿也 => 受盛작용, 水穀을 傳化(水穀爲實)
奇恒之府 : 藏而不瀉 - 형태는 腑와 유사, 機能은 臟과 유사

1). 五臟의 特性 : 五臟生理機能의 공통점 - ‘精氣의 化生과 貯藏’

- (1) 五臟은 精神氣血魂魄을 藏한다(靈樞, 本藏篇)
- (2) 五臟은 精氣血을 藏하되 瀉하지 않으므로 滿而不能實한다(素問 五藏別論)
- (3) 각 藏間에는 相互生成制約의 關係가 있다
- (4) 人體의 生理, 病理의 중심

2). 六腑의 特性 : 六腑生理機能의 공통점 - ‘水穀의 受盛과 傳化’

- (1) 六腑者 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靈樞 本藏篇)
- (2) 六腑者 傳化物而不藏 故實而不能滿(素問 五藏別論)

※六腑의 주요한 生理機能은 飲食物 傳化, 따라서 六腑의 特徵은 “實而不能滿”
‘六腑 以降爲順 以通爲用’

- (3) 각 腑사이에는 移動, 消化의 關係가 있다

※傳化之府 : 胃大腸小腸三焦膀胱(素問 五藏別論)

※倉廩之本 :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素問 六節藏象論)

제1절 五臟六腑의 機能(臟以藏爲主, 腑以通爲用)

1. 肝과 膽

1) 肝 : 주요 生理機能 : ①疏泄 ②藏血

※ 생리특징 개괄 : 主動, 主升

剛急, 好動, 喜條達, 罷極之本, 牡臟, 陰中之陽, 肝爲之將(영추 五癰津液別)

剛臟 : 剛強躁急(將軍之官, ex. 밖으로 표출 - 肝陽上亢)

※ 肝之勇而能斷 故曰將軍(王冰)

※ 肝의 生理特徵 : 主動, 主升으로 概括

┌ 肝氣升發 性喜條達 ⇒ 升發氣機 令其條達

└ 惡抑鬱

┌ 肝氣 肝陽 ⇒ 疏泄機能 ⇒ 有餘證

└ 肝血 肝陰 ⇒ 濡養肢體筋脈眼目衝任脈 ⇒ 不足證

肝陰은 肝血보다 廣範圍하여 食氣入胃 散精于肝의 精을 包含한다.

┌ 肝氣 : 鬱而不舒

└ 肝火 : 氣鬱化火

└ 肝陽 : 浮而上亢

(1) 肝主疏泄 : 肝의 疏泄機能은 肝의 主動, 主升의 生理特性을 이론적 기초로 함.

肝의 主動, 主升은 全身氣機調暢, 血液과 津液을 推動하여 전신에 운행시키는 重要要素

①調暢氣機(氣機의 通暢) : 氣機는 ‘氣의 升降出入운동’ cf)氣化란?

- 疏泄機能 正常時 --> 氣機調暢, 氣血調和, 經絡通利, 臟腑器官活動의 調和

- 疏泄機能 失調는 두 가지 方面

㉠ 肝失疏泄(疏泄不足) = 肝氣鬱結 ==> 脹滿, 疼痛不舒(胸脇, 兩乳, 小腹 등 部位的)

㉡ 肝升太過(主動主升太過) ==> 氣의 升發太過, 下降不及 ==> 肝氣上逆, 肝火上炎

==> 頭脹頭痛, 面紅目赤, 胸脇脹滿, 煩燥易怒

- 氣火上逆이 甚한 者 ==> 吐血, 咯血, 突然昏仆, 不知人事 = “氣厥” = “薄厥”

※ 血液의 運行과 津液의 輸布代謝도 氣機調暢에 依存함, 따라서

=> 氣機鬱滯되면 => 血滯成痰, 津停成痰, 혹 氣血互結, 痰氣互結로 癥積, 腫塊, 痰核 등 形成

=> 氣逆太過하면 => 出血

②脾胃의 運化機能 促進(助養消化) :

- 脾胃의 음식물의 受納, 消化, 吸收기능은 疏泄機能과 밀접히 연관됨. 그 表現방면은?

㉠ 疏泄機能이 氣機調暢->脾升胃降 정상->脾胃運化機能의 양호한 조건 형성

- 疏泄機能失調 : 脾의 升清不利 => 眩暈, 清氣下陷, 飧泄

胃의 降濁不利 => 胃氣上逆, 嘔逆, 濁氣不降

㉡ 疏泄機能이 膽汁分泌에 직접영향

- 疏泄機能失調 => 膽汁分泌不利 => 飲食減退, 口苦黃疸

※ 疏泄機能異常時の 病理

㉠ 脾主升清失調 ==> 清氣不升 ==> 眩暈, 清氣下陷 ==> 飧泄

㉡ 胃主降濁失調 ==> 胃氣上逆 ==> 噯氣嘔逆, 濁氣不降 ==> 脘腹脹痛, 便秘

㉢ 膽汁의 生成分泌排泄異常招來 => 運化機能異常

==> 食慾減退, 口苦, 黃疸, 厭油膩, 腹脹痛

--> 肝氣犯脾(肝脾不和), 肝氣犯胃(肝胃不和) = 肝木乘土

--> 肝主疏泄기능은 脾胃運化機能의 정상유지의 중요조건 = 土得木而達

※ 脾의 運化, 脾氣의 散精작용, 膽汁의 배설은 모두 疏泄作用에 의존

③ 調暢情志 : 情志는 七情과 五志 - 心이 주관하나 肝의 疏泄機能과 밀접하게 관련됨

그 이유는? 정상적 情志活動은 주로 氣血의 正常的 運行에 의지

疏泄機能 -> 調暢氣機, 血液運行 促進 -> 人體氣血正常運行的 重要 條件

- ‘血有餘即怒, 不足即恐’

- ‘肝主疏泄정상’ <==> 氣血和平, 情志안정

※ 肝失疏泄(疏泄機能不及) -> 肝氣鬱結 ==> 悲憂善慮, 心情抑鬱不樂

肝의 疏泄機能 太過 -> 肝氣肝火易升 ==> 急躁易怒, 情緒가 쉽게 격동

④ 婦女의 月經, 男子의 排精과 有關

⑤ 기타 : - 三焦의 通調水道를 돕는다.

- 任脈과 衝脈의 기능과 有關

- 膽汁排泄과 有關 : 膽汁은 肝의 餘氣로 생성되는 精汁 - 음식물 消化를 도움

※ 氣行即血行, 氣滯即血滯(氣血循環)

cf) 肝氣鬱結 : 胸脇脹滿, 急躁易怒 등

肝氣犯胃 : 胃氣가 내려가지 못해 발생

肝脾不和 : 脾氣가 올라가지 못해 생긴 腹泄

(2) 肝藏血 : ① 血液을 貯藏하고 血液量을 조절(‘人臥血歸於肝’에서 나타남)

※ 血液量 조절은 藏血機能(休息時)과 疏泄機能(活動時)에 의지함

※ 肝은 體陰用陽 -> 一定量의 血液이 있어야 陽氣制約 -> 疏泄機能 維持

즉 肝主藏血함으로 體는 陰이 되고,

肝主疏泄, 調暢氣機, 性喜條達함으로 用은 陽이 됨

※ 肝藏血機能減退 => 貯藏血量부족 ==> 肝血虛

=> 不能制約陽氣升動 ==> 肝陽上亢, 肝火上炎, 肝風內動

==> 다른 方面에서 ==> 吐血, 衄血, 崩漏 등 出血 現象

※ 肝藏魂 : 魂은 不自主의 思惟활동, cf) 神은 自主의 精神意識思惟活動

※ 魂과 神의 物質的基礎는 血 = ‘肝藏血 血舍魂’

=> 肝不藏血 => 魂不守舍 ==> 多夢易驚, 臥寐不寧, 夢語, 夢遊

② 疎泄機能과 藏血機能은 相補相成.

③ 心主血脈과 有關

※肝主謀慮

- ①<靈蘭秘典論>의 肝者 將軍之官謀慮出焉 - 장군이 전쟁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을 肝의 기능에 비유
- ②肝에는 일부 고급신경기능이 있음을 의미 - 肝藏血 血舍魂
- ③肝藏血의 臟器로서 疏泄主管 - 情志를 調暢, 氣機를 調暢, 脾胃의 運化機能 촉진
- ④肝氣는 舒暢調達을 좋아함 : 肝氣가 鬱結하거나 太過하면 肝陽이 왕성하여 躁急易怒, 肝氣가 不足하면 恐怖心を 유발(“血有餘即怒, 不足即恐”)

- 肝主疏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肝의 주요작용은?
- 罷極之本의 의미는?
- 肝藏血의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肝主筋에서 筋의 기능은? 그리고 肝主筋과 관련된 생리 병리를 설명하시오
- 爪를 통한 임상진단의 의의는?

2) 膽 : 外界와 不通, 水穀을 받지 않고 淸淨한 液을 貯藏 => 六府이면서 奇恒之府

- 주요 生理機能 - ① 膽汁의 貯藏과 分泌로 飲食物 소화를 돕는다
- ② 主決斷 ③ 膽氣主升 ④ 主勇怯

① 膽汁의 貯藏과 分泌로 飲食物 소화를 돕는다

“膽者 中精之府”, “中淨之府”, “中淸之府”

- 膽汁은 肝의 餘氣로부터 化生- 肝의 疏泄作用에 의해 조절되며 小腸으로 分泌됨.
- ‘肝之餘氣泄於膽 聚而成精汁’(東醫寶鑑)

※ 肝失疏泄 - 肝氣鬱結 ->膽汁排泄不利 =>胸脇脹滿疼痛,

->脾胃運化機能에 影響 ==>食欲不振, 腹脹, 便溏

肝泄太過 -> 肝氣上逆 혹은 肝火上炎==> 膽汁上逆 유발==>胸脇脹滿疼痛, 口苦,嘔吐
膽汁이 肌膚로 流出 ==>黃疸

② 主決斷

- 膽主決斷(膽者中正之官 決斷出焉)--> 勇怯과도 관계

- 驚悸, 怔忡을 치료

③ 膽氣主升 : 膽은 春升之氣, 春天(봄)의 少陽發生之氣

- 氣機의 升降出入에 있어서 膽氣가 升發運動 담당

- 少陽相火(多氣少血)

④ 主勇怯 : 勇氣와 怯은 膽氣의 虛實과 밀접한 상관성.

※ 凡十一臟 取決於膽也 =>人體氣機의 升降出入에서 膽이 升發을 주관한다는 뜻,

中正之官의 의미를 확장시킴, 臟氣活動이 膽에서 시작된다는 의미(少陽發生之氣와 연관),

肝膽의 疏泄기능이 氣機調暢함으로써 升降濁을 주도한다는 의미, 開闔樞의 의미 등과 관련된다

제 4 절 韓藥의 分類

1. 解表藥：表邪를 發散시켜 表證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는 약물

1) 發散風寒藥：辛溫 - 惡寒發熱, 無汗 또는 有汗, 頭痛身痛, 舌苔薄白, 脈浮緊 등의 症狀에 사용

▶ 麻黃, 桂枝, 紫蘇葉, 荊芥, 羌活, 白芷, 防風, 藁本, 辛夷, 細辛, 生薑, 香薷, 葱白, 檉柳, 蒼耳子

2) 發散風熱藥：辛涼 - 發熱, 咽乾口渴, 舌苔薄黃, 脈浮數

▶ 薄荷, 牛蒡子, 桑葉, 菊花, 葛根, 柴胡, 升麻, 蔓荊子, 淡豆豉, 蟬蛻, 浮萍, 木賊

2. 清熱藥：裏熱을 清泄하는 效能이 있는 약물 (주의!)陰盛格陽, 眞寒假熱일 때는 溫裏藥 使用)

1) 清熱瀉火藥：急性熱病의 高熱, 汗出, 煩渴, 譫語, 發狂, 小便短赤, 舌苔黃燥, 脈洪實 등 實熱證

▶ 石膏, 知母, 蘆根, 天花粉, 竹葉, 梔子, 夏枯草, 淡竹葉, 寒水石, 鴨跖草, 穀精草, 密蒙花, 青箱子, 槐角

2) 清熱燥濕藥：性味が 苦寒하여 濕熱證을 치료

腸胃濕熱 - 泄瀉, 痢疾, 痔瘻,

肝膽濕熱 - 脇肋脹痛, 黃疸, 口苦

下焦濕熱 - 小便淋瀝澀痛, 帶下

▶ 黃芩, 黃連, 黃柏, 龍膽草, 苦參, 白鮮皮, 大豆黃卷

3) 清熱涼血藥：營分血分の 熱邪를 清解하는 작용

實熱證인 迫血妄行과 發疹, 發斑, 吐血, 衄血, 便血, 舌絳煩燥, 神昏, 譫語

▶ 犀角, 鮮地黃, 玄參, 牡丹皮, 赤芍藥, 紫草

4) 清熱解毒藥：各種 熱毒證 - 癰瘡, 丹毒, 斑疹, 咽腫, 喉痺, 毒痢(化膿性, 感染性疾患)를 치료

▶ 金銀花, 連翹, 蒲公英, 紫花地丁, 大青葉, 板藍根, 青黛, 牛黃, 蚤休, 半邊蓮, 土茯苓, 魚腥草, 射干, 山豆根, 馬勃, 馬齒莧, 白頭翁, 秦皮, 鴉膽子, 敗醬草, 白花蛇舌草, 熊膽, 白蘞, 漏蘆, 山慈姑, 綠豆, 翻白草, 萎陵菜, 野菊花, 忍冬藤

5) 清虛熱藥：虛熱을 清熱시켜 解除하는 약물

口燥咽乾, 夜熱早涼, 熱退無汗 등의 陰虛發熱證

慢性消耗性疾患의 午後發熱, 手足心熱, 顴紅, 盜汗, 骨蒸勞熱證 등

▶ 青蒿, 白薇, 地骨皮, 銀柴胡, 胡黃連

3. 瀉下藥：大便을 通利시키는 약물 - 胃腸의 積滯를 제거하고 實熱을 清熱導下시키며

水飮을 攻逐하는 작용이 있어 裏實證에 사용

1) 攻下藥：苦寒 - 강한 瀉下作用, 裏實證으로 大便燥結, 實熱證, 火熱上炎, 上部充血 등에 사용

▶ 大黃, 芒硝, 蘆薈

2) 潤下藥：식물의 種子나 種仁으로 풍부한 油脂를 함유하여 潤燥滑腸의 작용

年老津枯, 産後血虧, 亡血患者의 腸燥津枯便秘 등에 사용

▶ 火麻仁, 郁李仁(앵두)

3) 峻下逐水藥：극렬한 腹痛과 泄瀉를 일으키고 利尿作用도 있어 大量的 水分을 대소변을 따라 배출하도록 하는 작용 - 허약한 환자, 孕婦의 경우에는 복용을忌함.

▶ 甘遂, 大戟, 芫花, 牽牛子, 商陸, 巴豆, 續隨子

4. 祛風濕藥：肌肉, 經絡, 筋骨 間の 風濕을 제거하여 風濕痺痛을 치료하는 약물
 - 1) 祛風濕 止痺痛藥；痛痺를 치료
 - ▶ 獨活, 威靈仙, 防己, 秦艽, 海桐皮, 草烏, 蠶沙, 菝葜, 馬錢子
 - 2) 舒筋活絡藥：風濕痺痛에 屈伸不利, 拘急, 肢體麻木, 癱瘓 등을 치료함
 - ▶ 木瓜, 絡石藤, 桑枝, 白花蛇, 豨薟草, 徐長卿, 絲瓜絡, 烏梢蛇, 臭梧桐, 海風藤
 - 3) 祛風濕 强筋骨藥：風濕을 제거하고 筋骨을 튼튼히 하는 작용
 - ▶ 五加皮, 虎骨, 槲寄生, 桑寄生
5. 芳香化濕藥：芳香性, 溫燥 - 化濕健脾하는 작용
 - ▶ 脘腹痞悶, 嘔吐泛酸, 大便溏薄, 少食體倦, 口甘多涎, 舌苔白膩
 - ▶ 蒼朮, 厚朴, 廣藿香, 砂仁, 白豆蔻, 草豆蔻, 草果, 佩蘭
6. 利水 滲濕藥：水道를 通利시켜 水濕을 滲除시키는 약물
 - 1) 利水退腫藥：水濕內停하여 생긴 水腫, 小便不利를 치료
 - ▶ 茯苓, 豬苓, 澤瀉, 薏苡仁, 冬瓜皮, 赤小豆, 螻蛄, 玉米鬚, 澤漆
 - 2) 利尿通淋藥：寒涼 - 尿頻不利와 熱淋小便灼熱, 短澀刺痛, 尿血, 結石, 小便混濁에 사용
 - ▶ 車前子, 木通, 滑石, 通草, 海金沙, 石韋, 萆薢, 地膚子, 篇蓄, 瞿麥, 冬葵子, 燈心草, 三白草
 - 3) 利濕退黃藥：利膽退黃시키는 효능이 있어 濕熱黃疸證에 주로 사용
 - ▶ 茵陳胡, 金錢草
7. 溫裏藥(祛寒藥)：裏寒證候를 치료(寒邪內侵하여 陽氣가 困한 臟寒證, 心腎陽虛의 亡陽證)
 - ▶ 附子, 川烏頭, 乾薑, 肉桂, 吳茱萸, 蜀椒, 萆薢, 萆薢茄, 丁香, 高良薑, 小茴香, 胡椒
8. 理氣藥：氣機를 疏通시키고 氣滯를 消除하는 효능이 있는 약물
 - ▶ 陳皮, 青皮, 枳實, 枳殼, 木香, 香附子, 烏藥, 沉香, 川楝子, 荔枝核, 青木香, 薤白, 檀香, 柿蒂, 玫瑰花, 大腹皮, 土木香, 甘松香
9. 消食藥：飲食積滯를 消化시키는 약물(食積消化와 健胃和中的 효능)
 - ▶ 山楂, 神麴, 麥芽, 穀芽, 萊菔子, 鷄內金
10. 驅蟲藥：寄生蟲을 驅除하거나 殺蟲시키는 약물
 - ▶ 使君子, 苦楝皮, 檳榔, 雷丸, 鶴虱, 榧子, 蕪荑, 貫衆
11. 止血藥：體內外의 出血을 制止하는 약물
 - 1) 收斂止血藥：虛損不足이나 外傷出血의 失血證에 좋은 효과 =>炒炭하여 사용하면 효과↑
 - ▶ 仙鶴草, 白及, 棕櫚皮, 藕節
 - 2) 涼血止血藥：寒涼 - 血熱妄行으로 인한 出血證에 사용
 - ▶ 大蓟, 小蓟, 地榆, 槐花, 側柏葉, 苧麻根, 白茅根, 羊蹄根
 - 3) 化瘀止血藥：化瘀作用을 가지고 있는 止血藥
 - ▶ 三七根, 蒲黃, 茜草根, 花蕊石
 - 4) 溫經止血藥：溫性 - 虛寒性的 出血證에 사용
 - ▶ 艾葉, 伏龍肝

12. 活血祛瘀藥：行血을 촉진하고 瘀滯를 消散시키는 효능의 藥物

▶ 川芎, 乳香, 沒藥, 玄胡索, 鬱金, 薑黃, 莪朮, 三棱, 丹參, 虎杖根, 益母草, 桃仁, 紅花, 五靈脂, 牛膝, 穿山甲, 蟪蟲(자충), 水蛭, 虻蟲, 澤蘭, 凌霄花, 自然銅, 王不留行, 劉寄奴, 蘇木, 乾漆, 皂角刺, 血竭, 馬鞭草, 茺蔚子(충위자), 卷柏, 鷄血藤

13. 化痰止咳平喘藥：祛痰이나 消痰시키는 효능이 있는 약물

1) 溫化寒痰藥：性味が 溫燥하여 溫肺去寒, 燥濕化痰함 =>寒痰, 濕痰을 치료함

▶ 半夏, 天南星, 白附子, 白芥子, 皂莢, 旋覆花, 白前

2) 清化熱痰藥：性味が 寒涼하여 熱痰을 清熱化痰하는 작용

▶ 前胡, 桔梗, 瓜蒌, 川貝母, 浙貝母, 天竺黃, 竹茹, 竹瀝, 海浮石, 文蛤, 青礞石, 海藻, 昆布, 胖大海, 瓦楞子, 枇杷葉, 冬瓜子

3) 止咳平喘藥：咳嗽喘息의 病證에 사용

▶ 杏仁, 百部根, 紫菀, 款冬花, 蘇子, 桑白皮, 葶藶子, 馬兜鈴, 白果

14. 安神藥：鎮靜安神的 효력이 있어 神志不安의 病證을 치료하는 약물

1) 重鎮安神藥：火邪上炎, 心火亢盛으로 인한 神志不安治療

▶ 朱砂, 磁石, 龍骨, 琥珀,

2) 滋養安神藥：陰血不足으로 인한 虛煩失眠, 驚悸怔忡, 眩暈健忘, 面色無華, 舌質淡, 脈細弱등의 神志不安을 치료

▶ 酸棗仁, 柏子仁, 遠志, 合歡皮, 靈芝, 夜交藤

15. 平肝藥：

1) 平肝息風藥(息風止癇藥)：肝風을 平息시켜 癇攣을 치료하는 약물

▶ 羚羊角, 鈞鈎藤, 天麻, 白僵蠶, 全蝎, 蜈蚣, 蚯蚬, 決明子

2) 平肝潛陽藥：肝陽을 平肝시켜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물

==>肝陽上亢으로 인한 眩暈, 頭痛 등 證에 사용

▶ 石決明, 牡蠣, 珍珠, 珍珠母, 玳瑁, 代赭石, 白蒺藜

16. 開竅藥：辛香走竄하는 성질이 있어 開竅醒神시키는 효능

▶ 麝香, 冰片, 石菖蒲, 蘇合香, 安息香, 蟾酥, 樟腦

※開竅藥은 辛香走竄하고 쉽게 휘발하므로 內服時 丸劑, 散劑에만 사용하고 煎劑에는 안좋다.

※神志가 昏迷되는 證 중에 虛證, 곧 脫證으로 神昏冷汗, 肢冷脈微欲絶할 때는 回陽救逆法

17. 補益藥：正氣를 補益하고 虛證을 치료하는 약물

1) 補氣藥：脾氣, 肺氣, 心氣 등을 補益하여 氣虛證을 改善하는 약물

脾氣虛：食欲不振, 肌肉消瘦, 體倦神疲, 大便稀溏, 臟器下垂 등과

造血機能不足, 血의 統攝기능 상실

肺氣虛：短氣喘乏, 聲音低微, 易出虛汗

心氣虛：心悸, 脈微虛弱無力

▶ 人蔘, 黨參, 黃芪, 白朮, 山藥, 白扁豆, 甘草, 大棗, 蜂蜜

2) 補陽藥：陽虛證을 消除 혹은 改善(心陽虛, 脾陽虛, 腎陽虛 등)

▶ 鹿茸, 鹿角, 鹿角膠, 鹿角霜, 巴戟天, 肉蓯蓉, 仙茅, 淫陽藿, 胡蘆巴, 杜仲, 續斷, 補骨脂, 狗脊, 益智仁, 骨碎補, 冬蟲夏草, 蛤蚧, 胡桃肉, 紫何車, 菟絲子, 沙苑子, 鎖陽, 韭子, 陽起石, 海狗腎, 海馬, 蛇床子

3) 補血藥：藥性이 滋膩함으로 消化에 주의!

▶ 當歸, 熟地黃, 白芍藥, 何首烏, 阿膠, 龍眼肉

※血虛證-面色萎黃蒼白, 脣甲蒼白, 眩暈耳鳴, 目昏, 心悸, 失眠健忘, 月經遲延, 量少, 經閉 등

4) 補陰藥：陰液을 滋養하여 陰虛證을 개선, 消除하는 약물

肺陰虛 - 口燥咽乾, 乾咳痰少, 咯血

胃陰虛 - 舌紅少苔, 津少口渴

腎陰虛 - 腰膝痠軟, 耳鳴, 遺精, 潮熱盜汗

肝陰虛 - 眼乾目澀, 眩暈, 震顫, 少寐多夢

▶ 沙參, 麥門冬, 天門冬, 石斛, 玉竹, 黃精, 百合, 枸杞子, 桑椹子, 旱蓮草, 女貞子, 龜板, 鱉甲, 黑芝麻, 楮實子

※補藥 使用時 주의사항：見藥不見人, 閉門留寇, 虛不受補(脾胃를 고려 - 消化吸收)

18. 收澀藥：滑脫不禁한 證候를 치료

1) 止汗藥：固表收斂작용

▶ 浮小麥, 麻黃根, 糯稻根

※配伍：氣虛와 脾虛의 自汗 - 黃芪, 白朮과 함께 益氣固表

陰虛와 血虛로 인한 盜汗 - 當歸, 白芍藥, 生地黃으로 養血滋陰

燥熱盜汗의 虛熱證 - 地骨皮, 知母등을 配伍

2) 止瀉藥：久瀉와 久痢不止에 사용

▶ 訶子, 肉豆蔻, 赤石脂, 烏梅, 罌粟殼, 禹餘糧, 石榴皮, 椿皮, 五倍子

3) 澀精 縮尿 止帶藥：正氣를 固하고 小便을 攝하며 白帶를 감소하는 등의 작용

▶ 五味子, 蓮子肉, 芡實, 山茱萸, 金櫻子, 桑螵蛸, 覆盆子, 海螵蛸, 白礬

19. 湧吐藥：嘔吐를 촉진시키는 약물

▶ 瓜蒂, 常山, 膽礬, 藜蘆

20. 外用藥

▶ 硫黃, 砒石, 雄黃, 輕粉, 鉛丹, 爐甘石, 硼砂, 斑蝥, 露蜂房, 大風子, 木槿皮

殺蟲止痒작용：硫磺, 明礬, 輕粉, 冰片, 樟腦, 蛇床子, 木槿皮, 爐甘石 - 疥癬, 濕疹치료

消腫散結작용：黃連, 黃柏, 大黃, 丁香, 蟾酥, 麝香, 芙蓉葉 - 瘡瘍初起나 焮腫熱痛치료

化腐排膿작용：輕粉, 升丹, 朱砂, 硼砂, 雄黃, 冰片 - 瘡瘍已潰나 膿腐에 사용

生肌收口작용：朱砂, 珍珠, 琥珀, 龍骨, 血竭, 冰片, 爐甘石 - 瘡瘍已潰, 瘡口未收 등에 사용

收斂護膚작용：明礬, 石灰, 虎杖, 地榆, 象皮, 龍骨, 牡蠣, 爐甘石, 赤石脂, 密陀僧, 五倍子, 海螵蛸, 滑石, 蜂蜜, 麻油

※毒性 要注意：水銀, 輕粉, 銀硃, 鉛丹, 密陀僧, 砒石, 升丹, 白降丹 등은 要注意

■ 本草 效能別 정리표

解表藥	發散風寒藥	麻黃 桂枝 紫蘇葉 荊芥 羌活 白芷 防風 藁本 辛夷 細辛 生薑 香薷 葱白 檉柳 蒼耳子
	發散風熱藥	薄荷 牛蒡子 桑葉 菊花 葛根 柴胡 升麻 蔓荊子 淡豆豉 蟬蛻 浮萍 木賊
清熱藥	清熱瀉火藥	石膏 知母 蘆根 天花粉 竹葉 梔子 夏枯草 淡竹葉 寒水石 鴨跖草 穀精草 密蒙花 青箱子 槐角
	清熱燥濕藥	黃芩 黃連 黃柏 龍膽草 苦參 白鮮皮 大豆黃卷
	清熱涼血藥	犀角 鮮地黃 生地黃 玄參 牡丹皮 赤芍藥 紫草
	清熱解毒藥	金銀花 連翹 蒲公英 紫花地丁 大青葉 板藍根 青黛 牛黃 蚤休 半邊蓮 土茯苓 魚腥草 射干 山豆根 馬勃 馬齒莧 白頭翁 秦皮 鴉膽子 敗醬草 白花蛇舌草 熊膽 白蘞 漏蘆 山慈姑 綠豆 翻白草 萎陵菜 野菊花 忍冬藤
	清虛熱藥	青蒿 白薇 地骨皮 銀柴胡 胡黃連
瀉下藥	攻下藥	大黃 芒硝 蘆薈
	潤下藥	火麻仁 郁李仁
	峻下逐水藥	甘遂 大戟 芫花 牽牛子 商陸 巴豆 續隨子
祛風濕藥	祛風濕止痛藥	獨活 威靈仙 防己 秦艽 海桐皮 草烏 蠶沙 菝葜 馬錢子
	舒筋活絡藥	木瓜 絡石藤 桑枝 白花蛇 豨薟草 徐長卿 絲瓜絡 烏梢蛇 臭梧桐 海風藤
	祛風濕強筋骨藥	五加皮 虎骨 槲寄生 桑寄生
芳香化濕藥		蒼朮 厚朴 廣藿香 砂仁 白豆蔻 草豆蔻 草果 佩蘭
利水滲濕藥	利水退腫藥	茯苓 赤茯苓 茯神 茯苓皮 豬苓 澤瀉 薏苡仁 冬瓜皮 赤小豆 螻蛄 玉米鬚 澤漆
	利尿通淋藥	車前子 木通 滑石 通草 海金沙 石韋 萆薢 地膚子 篇蓄 瞿麥 冬葵子 燈心草 三白草
	利濕退黃藥	茵陳胡 金錢草
溫裏藥		附子 川烏頭 乾薑 肉桂 吳茱萸 蜀椒 華撥 華澄茄 丁香 高良薑 小茴香 胡椒
理氣藥		陳皮 青皮 枳實 枳殼 木香 香附子 烏藥 沉香 川楝子 荔枝核 青木香 薤白 檀香 柿蒂 玫瑰花 大腹皮 土木香 甘松香
消食藥		山楂 神麴 麥芽 穀芽 萊菔子 鷄內金
驅蟲藥		使君子 苦楝皮 檳榔 雷丸 鶴蝩 榧子 蕪荑 貫衆
止血藥	收斂止血藥	仙鶴草 白及 棕櫚皮 藕節
	涼血止血藥	大蓴 小蓴 地榆 槐花 側柏葉 苧麻根 白茅根 羊蹄根
	化瘀止血藥	三七根 蒲黃 茜草根 花蕊石
	溫經止血藥	艾葉 伏龍肝
活血祛瘀藥		川芎 乳香 沒藥 玄胡索 鬱金 薑黃 莪朮 三棱 丹參 虎杖根 益母草 桃仁 紅花 五靈脂 牛膝 穿山甲 蟪蟲 水蛭 虻蟲 澤蘭 凌霄花 自然銅 王不留行 劉寄奴 蘇木 乾漆 皂角刺 血竭 馬鞭草 茺蔚子 卷柏 鷄血藤
化痰止咳平喘藥	溫化寒痰藥	半夏 天南星 白附子 白芥子 皂莢 旋覆花 白前
	清化熱痰藥	前胡 桔梗 瓜蒌 瓜蒌仁 瓜蒌皮 川貝母 浙貝母 天竺黃 竹茹 竹瀝 海浮石 文蛤 青礞石 海藻 昆布 胖大海 瓦楞子 枇杷葉 冬瓜子
	止咳平喘藥	杏仁 百部根 紫菀 款冬花 蘇子 桑白皮 葶藶子 馬兜鈴 白果
安神藥		朱砂 磁石 龍骨 琥珀 酸棗仁 柏子仁 遠志 合歡皮 靈芝 夜交藤
平肝藥	平肝息風藥	羚羊角 鈞鈎藤 天麻 白僵蠶 全蝎 蜈蚣 蚯蚓 決明子
	平肝潛陽藥	石決明 牡蠣 珍珠 珍珠母 玳瑁 代赭石 白蒺藜
開竅藥		麝香 冰片 石菖蒲 蘇合香 安息香 蟾酥 樟腦
補益藥	補氣藥	人蔘 黨參 黃芪 白朮 山藥 白扁豆 甘草 大棗 蜂蜜
	補陽藥	鹿茸 鹿角 鹿角膠 鹿角霜 巴戟天 肉苁蓉 仙茅 淫陽藿 胡蘆巴 杜仲 續斷 補骨脂 狗脊 益智仁 骨碎補 冬蟲夏草 蛤蚧 胡桃肉 紫何車 菟絲子 沙苑子 鎖陽 韭子 陽起石 海狗腎 海馬 蛇床子
	補血藥	當歸 熟地黃 白芍藥 何首烏 阿膠 龍眼肉
	補陰藥	沙參 麥門冬 天門冬 石斛 玉竹 黃精 百合 枸杞子 桑椹子 旱蓮草 女貞子 龜板 鱉甲 黑芝麻 楮實子
收澀藥	止汗藥	浮小麥 麻黃根 糯稻根
	止瀉藥	訶子 肉豆蔻 赤石脂 烏梅 罌粟殼 禹餘糧 石榴皮 椿皮 止血 五倍子
	澀精縮尿止帶藥	五味子 蓮子肉 芡實 山茱萸 金櫻子 桑螵蛸 覆盆子 海螵蛸 白礬
湧吐藥		瓜蒂 常山 膽礬 藜蘆
外用藥		硫黃 砒石 雄黃 輕粉 鉛丹 爐甘石 硼砂甘 斑蝥 露蜂房 大風子 木槿皮

제 13 장 治則과 治法

1) 外治法 : 鍼灸, 推拿, 外用藥物1

2) 內治法 : 汗法, 吐法, 下法, 和法, 溫法, 清法, 消法, 補法 → 八法

제1절 治療法則(治則)

1. 治病求本 => ‘질병치료의 根本原則’이 됨

1) 正治와 反治

(1) 正治法 : 질병의 臨床症狀의 성질과 질병의 本質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그 症候의 성질과 반대로 치료하는 방법(반대되는 藥性的 方劑를 사용하여 치료)

- 逆者正治 : 疾病의 성질에 逆되는 방제를 투여하여 偏勝, 偏衰, 太過, 不及을 조절
- 治寒以熱 治熱以寒(熱者寒之, 寒者熱之)
- 實證에는 攻法, 虛證에는 補法(實則瀉之, 虛則補之)

(2) 反治法 : 질병의 臨床症狀의 성질과 질병의 本質이 相反되는 경우에

그 臨床症狀의 성질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臨床症狀은 假象)

- 從者反治 : 표면의 證과 비슷한 약물을 사용하는 治法
- 假象이 출현하였을 때 미혹되지 않고 그 근본을 찾아내어 治療
(질병의 本質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反治가 아니고 正治이다.)

① 熱因熱用 : 以熱治熱 - 假熱症候에 溫熱法 사용

=> 眞寒假熱(陰盛格陽), 陰極似陽, 裏寒外熱(ex. 通脈四逆湯)

② 寒因寒用 : 以寒治寒 - 假寒症候에 寒涼法 사용

=> 眞熱假寒(陽盛格陰), 陽極似陰, ‘熱厥’(熱深厥深)

③ 塞因塞用 : 閉塞不通의 假實 證候에 補益法, 收澁法을 사용

‘表實裏虛證’(假實眞虛)에 => ‘以補開塞’ ‘以澁通痞’ ‘塞以通痞’

ex) - 脾虛患者에게 脘腹脹滿, 時脹時減 而不拒按, 納食減退

(水濕 痰濁 食積 등은 不顯)

- 精血不足, 氣虛不運으로 인한 大便秘結

- 腎이 蒸騰氣化失調 -> 二便不通

- 血枯로 인한 閉經, 血瘀

④ 通因通用 : 通泄이 太過한 假虛(假脫) 證候에 通利法을 사용하여 치료

ex) - 食積停滯로 인한 泄瀉

- 濕熱下注에서 나타나는 小便頻數, 痢疾, 泄瀉, 帶多

- 血瘀에 의한 崩漏, 出血

⑤ 反佐法: 用藥反佐, 服用反佐(ex. 寒이 甚-> 溫熱藥에 小量의 寒涼藥을 佐, 혹 熱藥冷服)

cf) 眞實假虛(충강 505 참조) 中 眞熱假寒(四肢厥冷의 假象) => 寒因寒用法

眞寒假熱(陰盛格陽의 假象) => 熱因熱用法

裏實表虛(通泄太過의 假象) => 通因通用法

즉, 나타나는 假象의 종류에 따라 비슷한 眞實假虛證이라도 治法을 달리함

	疾病	正邪	發病時期	病理狀態	部位	證狀	治法
本	原因, 本質	正氣	先發(原發病), 舊病	眞證	裏證	本證(主證)	原因治療
標	現象, 症候	邪氣	後病(續發病), 新病	假證	表證	兼證	對症治療

2) 標本治法 :

- ① 急則治其標 - 症狀치료 ----->對症治療 ----- 後病, 外病
 - 中滿, 大小便不利 등은 急重함으로 마땅히 標를 먼저 치료해야함
 - ex. 肝硬化患者의 腹水, 蛔厥腹痛劇烈時
 - 기타 大出血, 呼吸喘促, 神昏狂亂, 高熱, 大汗, 吐瀉不止등 특별히 兪중한 증상 時
- ② 緩則治其本 - 질병의 本質과 原因 --原因根本治療 --先丙, 內病
 - ‘緩’은 表證의 證候가 급하지 않은 것이지 本의 증후가 緩和한 것은 아님
 - 慢性疾病과 急性疾病의 恢復期에 중요한 의의
- ③ 標本同治 : ①虛人感冒 ② 邪氣亢盛하면서 正氣受傷한 때(ex. 熱盛傷陰)
 - ③表證未解한데 裏證이 나타난 경우 ④標本이 모두 危重할 때

2. 虛實補瀉 : 臟腑, 陰陽, 表裏, 氣血의 虛實 -> 有餘와 不足 -> 瀉法과 補法

外部로부터 들어오는 是動病은 實證이 多 ->瀉法爲主,
 內部에서 생기는 所生病은 虛證이 多 -> 補法爲主

3. 季節, 地域, 體質(性別, 年齡)에 따른 치료원칙 :

- ① 因時制宜 : 四時季節의 다른 점을 고려 - ‘必先歲氣, 無伐天和’
 - ‘用寒遠涼 用溫遠溫.....’, ‘故春善病飢飢仲夏善病胸脇長夏善病洞泄寒中秋善病風瘧冬善病痺厥.’
- ② 因地制宜 : 지리특성과 환경조건이 人體와 疾病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
 - (①.地勢高低 ②人間의 生理病理變化의 特点③氣候條件④生活慣習)
 - 西北之氣, 散而寒之; 東南之氣, 收而溫之, 所謂同病異治也.(素問 五常政大論)
 - 醫之治病也, 一病而治各不同, 皆愈何也? 岐伯對曰 地勢使然也.
- ③ 因人制宜 ; 年齡, 性別, 體質, 生活慣習

4. 祛邪와 扶正 : 邪正의 盛衰變化는 질병의 發生, 發展, 變化, 轉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邪正의 勝負는 질병의 進退를, 邪正의 盛衰는 질병의 虛實變化를 결정함

- ①扶正 : 正氣不足 또는 正氣虛하나 邪氣未盛한 경우
- ②祛邪 : 邪氣盛實(正氣損傷은 가벼움) ex. - 其在皮者 汗而發之 - 其高者 因而越之
 - 中滿者 瀉之于內 - 其下者 引而竭之
- ③扶正과 祛邪 兼用 : 이미 正虛한 데 邪實하게 된 病證(邪氣盛, 正氣已衰)
 - 正虛와 邪實의 순서에 주의하여 主次를 결정 :
 - 原則 : 扶正하면서도 邪氣留滯는 안되게 하고 祛邪하되 正氣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 ④先祛邪後扶正 :

- ㉠ 正虛와 邪實이 동시 존재하고, 正氣虛衰하지만 攻邪시키는 약물을 건딜 수 있을 때
- ㉡ 邪氣를 즉시 攻逐하지 않으면 正氣회복이 어려운 病證
 ex)- 瘀血阻滯로 인한 崩漏 -> 血虛 상태라도 먼저 活血祛瘀
 - 腎陽虛 水泛으로 水腫 -> 먼저 逐水利水하고 다시 益腎壯陽

④先扶正後祛邪：正虛와 邪實이 동시에 존재하고, 正氣虛衰가 極에 달하여 攻邪시키는 약물을 건딜 수 없을 때 먼저 즉시 扶正.

ex)- 蟲積病人이 脾氣虛衰가 이미 極할 때(殺蟲攻積하는 약물을 건디지 못함)
- 氣虛血瘀로 인한 心痺

다른 표현) ①先攻後補：病邪가 盛하고 正氣가 虛하나 버틸 수 있을 때

②先補後攻：病邪가 盛하고 正氣가 陽衰나 陰竭에 까지 이르렀을 때

③攻補兼施

5. 陰陽調整：陰平陽秘의 생리상태 회복

①偏盛調整：陰이나 陽이 有餘한 것을 덜어냄

- 損其有餘 -> 瀉實, 祛邪

- 陰勝即陽病 -> 瀉陰補陽

陽勝即陰病 -> 瀉陽補陰

②偏衰調整

※ - 陰虛陽盛(虛熱) - 壯水之主以制陽光 - 陽病治陰 - 諸寒之而熱者取之陰(滋陰)

- 陽虛陰盛(虛寒) - 益火之源以消陰翳 - 陰病治陽 - 諸熱之而寒者取之陽(補陽)

※ 엄중한 陰陽偏衰：

陰陽互根互用 -> 無陽即陰無以生 無陰即陽無以化 -> 陰損及陽, 陽損及陰

- 陰中求陽(補陽藥을 主藥으로 삼되 適當량의 滋陰藥을 佐藥으로 사용)

- 陽中救陰(補陰藥을 主藥으로 삼되 適當량의 溫陽藥을 佐藥으로 사용)

■ 陰陽학설의 활용 例

① 人體의 각종 생리 및 병리 변화 설명

② 臨床辨證 - 陰陽辨證이 總綱

③ 病理變化 - 陰陽失調로 概括

④ 治療原則 - 陰陽調整을 強調

⑤ 病機 중 表裏出入, 上下昇降, 寒熱進退, 邪正盛衰, 營衛不和, 氣血失調 등은

陰陽失調를 활용하여 해석가능

形不足者, 溫之以氣; 精不足者, 補之以味. 其高者, 因而越之; 其下者, 引而竭之, 中滿者, 寫之於內,

其有邪者, 瀉形以爲汗. 其在皮者, 汗而發之; 其標悍者, 按而收之; 其實者, 散而寫之. 審其陰陽, 以別柔剛,

陽病治陰, 陰病治陽, 定其血氣, 各守其鄉(素問 陰陽應象大論)

6. 臟腑機能調整：① 각 臟腑의 생리기능의 쇠퇴와 항진 조정,

② 臟腑사이의 생리기능의 평형조정 ex.肝升과 肺降, 脾升과 胃降

7. 氣血調整：氣能生血(血虛時 補氣法응용), 出血시 補氣固攝,

吐衄시 氣機逆亂 고려 ->治血先治氣, 氣降即血止

血瘀 ->益氣活血, 理氣活血

※ 다음 중 治則에 속하는 것은? 治病求本, 虛實補瀉, 因人因時因地制宜, 扶正去邪, 陰陽調整, 臟腑機能調整, 氣血調整

1. 鍼灸의 작용 : 穴位의 자극을 통해 經絡의 기능을 高揚시켜 치료효과를 나타냄
 - 鍼 : 急性疾患이나 熱性, 實證에 많이 사용
 - 灸 : 慢性疾患이나 寒性, 虛證에 많이 사용
 - 침구요법의 장점 - 臨床各科의 모든 治療, 豫防, 診斷에 응용하여 활용범위가 넓다
 - 효과가 빠르고 우수하다
 - 매우 경제적이다
 - 부작용이 적고 施術이 간편하다
 - ① 調氣 : 經絡藏府之氣의 不均衡을 調節, 氣血의 運行을 조화시킴
用鍼之類 在於調氣(靈樞 刺節眞邪篇)
 - ② 治神 : 神動, 氣行하게 하여 調氣의 功效를 높임
制其神 令氣易行(素問 鍼解篇)

2 . 九鍼 :

- ① 鑱鍼 : 皮膚淺刺, 頭部와 身體의 熱證을 治(오늘날 皮膚鍼)
- ② 圓針 : 皮膚를 문질러 分肉間 氣滯를 治療, 肌肉을 傷하지 않음
- ③ 錵鍼(推鍼) : 經脈을 按壓함. (深入해서는 안됨, “主按脈勿陷 以致其氣”)
- ④ 鋒鍼 : 瀉血--> 癰腫, 熱病을 治(오늘날 三稜鍼)
- ⑤ 鈹鍼 : 劍形. 癰膿 등 外症의 割治에 사용(오늘날 劍針 또는 割刀)
- ⑥ 圓利針 : 癰腫痺證에 深刺함
- ⑦ 毫鍼 : 寒熱, 痛痺를 治,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상용하는 鍼具
- ⑧ 長鍼 : 深刺하여 深邪遠痺를 治
- ⑨ 大針 : 瀉水하는데 사용(水腫치료)

cf)기타

- 皮膚針 - 多鍼을 淺刺, 七星鍼, 梅花針, 叢鍼, 車鍼, 小兒鍼 등
- 陶鍼 - 磁器片 등으로 淺刺
- 皮內鍼 - 埋鍼, 耳鍼療法에 常用
- 芒鍼 - 特製 長鍼
- 刺絡(刺血) : 三稜鍼, 小眉刀, 皮膚鍼등을 이용, 소량의 혈액(10ml)을 방출
無痛瀉血鍼은 鋒鍼에서 유래
*鋒鍼은 瀉熱出血, 宛陳則除之
- 溫鍼(火鍼) : 風濕疾患(류머티스질환)이나 寒性경향이 뚜렷한 질병치료
- ※ 砭石 : 最古의 鍼刺道具
- ※ 刺絡方法 : 點刺(瘀血腰痛, 扁桃炎) 挑刺(耳後, 胸背部 絡脈을 瀉血)
- 叢刺(局所紅腫) 散刺(皮膚病등 넓은 면적)

● 中國歷史年代簡表

夏			B.C.21세기-B.C.16세기
商			B.C.16세기-B.C.11세기
周	西周		B.C.11세기-B.C.771년
	東周		B.C.770년-B.C.256
	春秋		B.C.770년-B.C.476
	戰國		B.C.475년-B.C.221
秦			B.C.221년-B.C.207
漢	西漢		B.C.206년-A.D.24
	東漢		25-220
三國	魏		220-265
	蜀		221-263
	吳		222-230
晉	西晉		265-316
	東晉		317-420
南北朝	南朝	宋	420-479
		齊	479-502
		梁	502-557
		陳	557-589
	北朝	北魏	386-534
		東魏	534-550
		北齊	550-577
		西魏	535-556
北周		557-581	
隋			581-618
唐			618-907
五代	後梁		907-923
	後唐		923-936
	後晉		936-947
	後漢		947-959
	後周		951-960
宋	北宋		960-1127
	南宋		1127-1279
遼			916-1125
金			1115-1234
元			1271-1368
明			1368-1644
清			1644-1911
中華民國			1911-1949
中華人民共和國			1949成立